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KHÓA LUẬN TỐT NGHIỆP

NGÀNH : NGÔN NGỮ ANH-HÀN

Sinh viên : Trần Thị Thu Thảo

Mã sinh viên : 2112755012

HẢI PHÒNG – 2025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대조 연구

KHÓA LUẬN TỐT NGHIỆP ĐẠI HỌC HỆ CHÍNH QUY
NGÀNH: NGÔN NGỮ ANH-HÀN

Sinh viên: Trần Thị Thu Thảo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ThS. Nguyễn Hồng Minh

HẢI PHÒNG – 2025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NHIỆM VỤ ĐỀ TÀI TỐT NGHIỆP

Sinh viên: Trần Thị Thu Thảo

Mã SV: 2112755012

Lớp : NA2501H

Ngành : Ngôn ngữ Anh-Hàn

Tên đề tài: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대조 연구

NHIỆM VỤ ĐỀ TÀI

1. Nội dung và các yêu cầu cần giải quyết trong nhiệm vụ đề tài tốt nghiệp

.....

.....

.....

.....

.....

.....

2. Các tài liệu, số liệu cần thiết

.....

.....

.....

.....

.....

.....

3. Địa điểm thực tập tốt nghiệp

Công ty TNHH Tư Vấn Giáo dục
VGO (V-Go Edu)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ĐỀ TÀI TỐT NGHIỆP

Họ và tên : ThS. Nguyễn Hồng Minh

Cơ quan công tác : Trường Ngoại Ngữ - Đại học Thái Nguyên

Nội dung hướng dẫn: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대조 연구

Đề tài tốt nghiệp được giao ngày tháng năm 2025

Yêu cầu phải hoàn thành xong trước ngày tháng năm 2025

Đã nhận nhiệm vụ ĐTTN

Sinh viên

Đã giao nhiệm vụ ĐTTN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Trần Thị Thu Thảo

ThS. Nguyễn Hồng Minh

Hải Phòng, ngày..... tháng... năm...

XÁC NHẬN CỦA KHOA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PHIẾU NHẬN XÉT CỦA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TỐT NGHIỆP

Họ và tên giảng viên: ThS. Nguyễn Hồng Minh
Đơn vị công tác: Trường Ngoại Ngữ - Đại học Thái Nguyên
Họ và tên sinh viên: Trần Thị Thu Thảo
Chuyên ngành: Ngôn ngữ Anh-Hàn
Nội dung hướng dẫn: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대조 연구

1. Tinh thần thái độ của sinh viên trong quá trình làm đề tài tốt nghiệp

.....
.....
.....

2. Đánh giá chất lượng của đồ án/khóa luận (so với nội dung yêu cầu đã đề ra trong nhiệm vụ Đ.T. T.N trên các mặt lý luận, thực tiễn, tính toán số liệu...)

.....
.....
.....

3. Ý kiến của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tốt nghiệp

Được bảo vệ ☐ Không được bảo vệ ☐ Điểm hướng dẫn ☐

Hải Phòng, ngày 15 tháng 02 năm 2023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Ký và ghi rõ họ tên)

ThS. Nguyễn Hồng Minh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PHIẾU NHẬN XÉT CỦA GIẢNG VIÊN CHẤM PHẢN BIỆN

Họ và tên giảng viên:
Đơn vị công tác: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Họ và tên sinh viên: Trần Thị Thu Thảo
Chuyên ngành: Ngôn ngữ Anh-Hàn
Nội dung hướng dẫn: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대조 연구

1. Phần nhận xét của giảng viên chấm phản biện

.....
.....
.....
.....

2. Những mặt còn hạn chế

.....
.....
.....
.....

3. Ý kiến của giảng viên chấm phản biện

Được bảo vệ ☐ Không được bảo vệ ☐ Điểm phản biện ☐

Hải Phòng, ngày tháng 02 năm 20

Giảng viên chấm phản biện

(Ký và ghi rõ tên)

감사의 말씀

우선, 본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베풀어 주신 지도 교수님이신 Nguyen Hong Minh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교수님께서 연구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조언과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셨다. 또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으며,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동력이 되었다.

다음으로, 하이퐁 관리 및 기술 대학교 외국어학과의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지난 4년간 교수님들께서 제공해 주신 강의와 지도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전공 지식을 탄탄히 쌓을 수 있었으며, 논문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변함없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정신적·물질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다. 또한, 친구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 과정에서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앞으로의 학문적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이퐁, 2025 년 2 월
학생

Tran Thi Thu Thao

목 록

감사의 말씀.....	i
목 록.....	ii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 주제 선정 이유.....	1
1.1.1.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명령문의 중요성	1
1.1.2. 하이퐁 관리 및 기술 대학교에서 한국어 명령문의 교육 및 학습 실태.....	1
1.1.3. 한국어 명령문 학습 및 사용의 어려움	2
1.1.4. 연구 주제 선정의 개인적 이유.....	2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1.3. 연구 질문.....	5
1.4. 연구 대상 및 방법	5
1.5. 연구 범위.....	6
1.6. 연구 구조.....	10
제 2 장 - 기본적 논의.....	11
2.1 베트남어와 한국어에서 의 문장 개괄.....	11
2.1.1 공손함에 대한 개념	11
2.1.1.1.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공손 표지	11
2.1.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12
2.1.2.1 한국어 문장	12
2.1.2.2 베트남어의 문장.....	13
2.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명령문	17
2.2.1 명령문의 정의.....	17
2.2.2.1 한국어 명령문의 실현 양상	21
2.2.2.2 베트남어 명령문 실현 양상	24
2.3.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특징 대조	27

2.3.1.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주어 대조	27
2.3.1.1. 주어의 출현 여부	27
2.3.1.2. 주어의 인칭	32
2.3.2.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서술어 대조.....	38
2.3.2.2. 서술어의 제약.....	43
2.3.3. 한국어와 베트남어 부정 명령문 대조.....	51
2.3.3.1. 한국어 부정 명령문.....	51
2.3.3.2. 베트남어.....	53
제 3 장. 연구 결과 및 고찰	55
3.1 베트남어와 한국어 명령문의 구조적 유사점과 차이점	55
3.1.1.1 주어에 대한 대조 분석	56
3.1.1.2. 서술어에 대한 대조 분석.....	57
3.2. 베트남어와 한국어 명령문의 기능적 유사점과 차이점	58
3.2.1. 유사점	58
3.2.2. 차이점	58
3.3.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	59
3.4. 해결 방안.....	59
제 4 장. 결론	61
<참고문헌>	64

제 1 장- 서론

1.1. 연구 주제 선정 이유

1.1.1.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명령문의 중요성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명령문은 명령, 요청, 제안, 충고 또는 금지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모든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장 구조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청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모두 아시아계 언어에 속하지만, 명령문 사용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단순히 문법적 형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 예의 수준 및 특정 상황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명령문을 대조 분석하는 것은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학습자가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1.1.2. 하이퐁 관리 및 기술 대학교에서 한국어 명령문의 교육 및 학습 실태

하이퐁 관리 및 기술 대학교에서는 한국어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외국어 중 하나이다.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명령문은 중요한 문법 요소이지만, 동시에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어 명령문 체계는 베트남어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경어법(존비법) 체계의 명확한 구분: 한국어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및 예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명령문을 사용한다. 반면, 베트남어는 명령문에서 존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주로 대명사를 통해 예의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종결어미 시스템: 한국어에서는 -(으)십시오, -(으)세요, -아/어라, -게, -도록 하다 등 다양한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명령문을 표현하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주로 *hãy*, *đừng*, *chớ* 등의 명령 부사와 *đi*, *nhé*, *nào* 등의 어기 조사(양태 조사)를 사용한다.

문화적 차이와 표현 방식: 한국어에서 부적절한 명령문 형태를 사용하면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반면, 베트남어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명령문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학생들은 한국어 명령문의 적절한 형태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예의 수준을 잘못 조절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언어의 명령문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가 보다 정확한 명령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3. 한국어 명령문 학습 및 사용의 어려움

명령문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경어법 구분: 한국어의 복잡한 경어법 체계로 인해 학습자는 올바른 명령문 형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으)십시오”를 친구에게 사용하면 너무 딱딱하게 들릴 수 있고, “-아/어라”를 연장자에게 사용하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베트남어에서 한국어로의 명령문 변환: 학습자들은 종종 베트남어 명령문을 한국어로 직역하는 실수를 범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에서 “*Anh giúp em với!*” (형, 나 좀 도와줘!)는 부드러운 요청의 의미를 가지지만, 한국어로 “형, 나 도와!”라고 번역하면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잘못된 종결어미 사용: 많은 학생들이 “-세요” (존댓말)와 -아/어라 (반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며, “-도록 하다”와 같은 간접 명령문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사용 방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가 명령문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4. 연구 주제 선정의 개인적 이유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으로서, 필자 역시 명령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때로 한국어 명령문의 경어법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베트남어에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기 힘들 때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필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명령문 대조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두 언어의 명령문 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명령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한 이론적 분석을 넘어서, 한국어 명령문의 교수법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명령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명령문과 베트남어 명령문을 대상으로 명령문의 특징을 대조 분석하고 양 언어 명령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문장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이때 어떤 문장 유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발화 목적에 의해 분류된 것을 문장 유형이라고 하는데 모든 언어가 동일한 문장 유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는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평서문을 사용하고, 질문할 때는 의문 문을 사용하고, 명령하거나 요청하기 위해서는 명령문을 사용하며, 같이 무엇인가를 하 기를 원할 때는 청유문을 사용한다. 하지만, 베트남어에는 한국어의 청유문에 해당하는 문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청유문을 명령문의 하위 범주로 간주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명령문을 대조 분석할 때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다는 명령문의 의미는 한국어나 베트남어에도 비슷하게 제시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하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명령문을 형성하는 방식이 다르다.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지만 고립어에 속하는 베트남어는 명령 부사나 어기 조사(*), 수행 동사를 사용하여 명령문을 만든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가. Mọi người hãy đứng lên. 여러분/ 명령 부사/ 일어나다
나. Mọi người đứng lên đi. 여러분/ 일어나다/ 어기 조사
다. Tôi yêu cầu mọi người hãy đứng lên. 저/요청하다/여러분/명령 부사/일어나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여러분, 일어나세요.

위의 (1)을 보면 “일어나”는 행위를 요청할 때 한국어의 경우에는 명령형 종결어미 ‘-(으)세요’로 명령문이 실현된다. 베트남어의 경우, (1 가)는 명령 부사 ‘hãy’를 서술어 앞에 두는 방식으로 명령문을 만든 것이고, (1 나)는

여기 조사 “đi”를 문장 끝에 두어 명령문을 만들었다. (1 다)는 수행 동사 'yêu cầu(요청하다)'를 사용하여 명령문을 만든 것이다.

(*) 여기 조사란 문장 끝에 붙여 화자의 마음 상태나 기분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 조사가 문장에 없어도 되지만, 여기 조사가 있다면 문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전달하거나 화자의 기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여기 조사는 양태 조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 명령문에는 종결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베트남어 명령문에는 명령 부사 또는 여기 조사, 수행 동사 없이 문말 어조로 명령을 표현할 수 있다.

(2) 가. 빨리 가요.

나. Đi nhanh. (↗)

(2 가)는 '해체'의 명령형 종결어미 “-아/-어”로 명령문을 만들었다. 대응된 베트남어 번역문 (2 나)는 문말 어조만으로 명령문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베트남어에서는 동사가 활용되지 않고 원형으로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어미가 발달되어 동사가 활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명령문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어 명령문의 주어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령문은 화자가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말이어서 명령의 수행자가 청자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어 명령문의 경우, 주어의 생략이 한국어의 경우보다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3) (형이 동생에게)

(Em) đi chợ đi.

(너) 장 보러 가.

(4) (딸이 어머니에게)

Mẹ cho con chút tiền tiêu vặt đi.

(엄마) 용돈 좀 줘요.

(3)은 형이 동생에게 장을 보러 가는 행위를 요청할 때 주어 'em(너)'은 출현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음을 보인다. 반대로 (4)에서 보듯이 딸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는 행동을 요청할 경우 주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만약에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딸이 어머니에게 존대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된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 '해요체'의 명령형 종결어미 '-어요'로 실현되면 주어가 없어도 상대에게 존대의 태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이상으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 명령문과 베트남어 명령문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외국어를 배울 때 학습자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은 자기 모국어와 목표 언어의 차이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 언어의 간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양 언어의 대조 분석 연구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서로 어떠한 대응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3. 연구 질문

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명령문 구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 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학습 오류는 무엇인가?
3. 한국어 명령문 학습과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1.4.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특징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문헌 연구 방법**과 **대조 언어학적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된다.

우선,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과 관련된 기존 연구 자료를 수집 및 종합할 것이다. 여기에는 명령문에 관한 선행 연구, 문법 서적, 학술 논문, 그리고 한국어 및 베트남어 교육 자료가 포함된다. 문헌 연구를 통해 명령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두 언어에서 명령문이 실현되는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구축할 것이다.

대조 언어학적 분석 방법

다음으로, 연구에서는 대조 언어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측면을 중심으로 대조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주어(주체): 명령문에서 주어의 출현 여부 및 인칭 대명사의 사용 방식 분석. 서술어(동사): 명령문에서 서술어의 시제, 상(相), 그리고 사용 제약 요소 비교. 부정 명령문: 두 언어에서 부정 명령문의 구성 방식 비교. 공손 표현: 한국어 명령문에서의 경어법(존댓말 사용)과 베트남어 명령문에서의 어기(문말 조사) 및 정중 표현 비교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학술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1. **한국어 및 베트남어 문법 서적:** 각 언어에서 명령문의 구성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자료
2. **대조 문법 연구 논문:**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비교 분석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연구 방법론 제공
3. **한국어 및 베트남어 교육 자료:** 외국어 학습자가 명령문을 어떻게 배우고 사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

이러한 자료를 선정한 이유는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학술 자료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회화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실생활에서의 언어 사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두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5.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을 분석하기 위해 문법 서적, 학술 연구 및 한국어와 베트남어 교육 자료를 주요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이에 반해, 일상 회화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자연 언어 자료는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학술 자료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연구의 과학성, 체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문법 서적과 학술 연구들은 명령문의 구조와 사용 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확립된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연구가 신뢰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 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대조 분석이 표준화된 언어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적 변이 또는 비표준적인 언어 사용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 명령문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채영희(1983), 박금 자(1987), 박영준(1994), 서정수(1996), 고성환(2003), 이지수(2016) 등에서 명령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채영희(1983)에서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명령법'이라 해 서 명령문 이외에도 명령의 의미를 가지는 서법적 요소를 밝혔다. 명령을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명령>요구>부탁>제안>의뢰>청원>기원으로 나눴다. 그리고 명령문의 서술어를 살펴보았을 때 동작동사나 과정동사라야 하며 상태 동사 중에서도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심리적 움직임이 가능한 것은 명령 동사로 쓰인다고 하였다. 부정 명령이라고 규정해 오던 '-지 말'은 판단의 개념인 [부정]이 아니라 [금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금자(1987)에서 “-어라, -게, -구료”가 명령법 외에 다른 문체법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명령문을 어미 형태 중심으로 기술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들이 쓰인 문장을 중심으로 명령의 문법적 제약과 의미 특성을 음미함으로써 명령법이 독자적인 문체 법 범주임을 확인하였다. 명령문 주어가 2 인칭, 혹은 '감추어진 2 인칭'이며 서술어는 동 작동사에 한정되고 서술어에는 시제형태소와 인식양태소가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록', '-르 것'의 경우는 명령법 고유의 어미는 아니나, 명령표현의 어미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영준(1994)은 명령문의 정의, 명령문의 범주 그리고 현대국어의 명령문 종결어미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명령문의 서술어 자리에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올 수 있다고 하며 동사이면 “자제 가능한 동사”라 하더라도 “-가치”를 가진 어휘는 긍정 명령문에 사용할 수 없고 부정 명령문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명령문과 부사에 대한 제약 관계도 논의하였다.

서정수(1996)에서 명령문의 하위 범주는 일반 명령문 또는 지시문, 청원문 또는 기원문 그리고 허락문이 있다고 하였다.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복합문에 내포되는 문장이 고 상위문의 서술어는 일종의 수행 동사라고 하였다. 표면상에서 수행 동사가 임의로 또는 필수적으로 삭제되고 내포문을 표현화하기 위해 명령문의 꼴을 갖추게 한다고 하였다.

고성환(2003)은 명령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밝히고 몇 가지 유형의 명령문의 본질을 구명하였다. 명령문과 관련이 있는 허락문, 기원문, 청유문 등과 명령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명령문 논의에서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어와 호격어의 문 제도 따로 다루었다. 주어 생략과 주어 실현되어야 하는 조건, 서술어의 제약을 같이 제시하였다. 명령문의 서술어는 명령문에 쓰일 수 있기 위해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의 개입 가능성 또는 제어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지수(2016)에서 명령문 범주의 규정,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이 명령문의 범주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명령문이라는 문장 유형은 명령형 종결어미나 지시 화행이라는 조건에 의한 고전적인 범주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명령문의 원형적인 범 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원형적인 명령문은 지시 화행을 수행하며 통사·형태적인 특성을 가지는 문장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명령문은 원형적인 명령문도 있고 비원형적인 명령문도 있다고 하였으며 '지시의 힘'이 강하면 원형적인 명령 문으로 간주되고 '지시의 힘'이 약하거나 없으면 비원형적인 명령문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원형적인 명령문에 속하는 조건 명령문, 인사나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명령문의 용법도 제시하였다.

위에서 한국어 명령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어서 베트남어 명령 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그 연구들에는 Hoàng Trọng Phiến(1980), Chu Thị Thủy An(2002), Bùi Thị Kim Tuyền(2005) 등을 들 수 있다.

Hoàng Trọng Phiến(1980)은 특정 형태소와 어조로 명령문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어 명령문이 특정한 문법을 보이지 않으며 화자의 뜻을 억양으로 표현하고 청자에게 행동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밝혔다.

Chu Thị Thủy An(2002)에서 구성에 따라 베트남어 명령문의 형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는 명령 부사, 조동사, 어기 조사로 이루는 형식이고, 둘째는 수 행 동사로 이루는 형식이라고 하였다. 첫째 형식에는 주어가 청자이고, 두 번째의 형식에는 주어가 화자일 것이라고 하였다. 첫째의 명령문 형식에는 주어가 반드시 2 인칭이나 1 인칭 복수이고 두 번째의 형식에는 주어가 1 인칭 단수와 복수에 국한된다고 조건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명령문의 서술어 자리에서 동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으며 모두 [+ 사람], [+ 제어]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Bùi Thị Kim Tuyền(2005)에서 명령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직접적인 명령 표현과 간접적인 명령 표현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직접적인 명령 표현은 2 인칭 주어 생략, 어기 조사 사용, 조동사 'cần, phải, nên' 사용, 명령 부사 'hãy, đừng, chớ' 그리고 수행 동사 사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수행 동사를 사용할 때는 주어가 반드시 1 인칭이어야 하며, 명령 수행자를 가리키는 목적어 자리에서는 2 인칭 이어야 하고, 수행 동사는 반드시 현재 시제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명령문을 쓰기 위해 화자가 청자의 관계를 잘 이해한 다음에 청자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령 수행의 이익에 따라 명령의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명령 수행의 이익이 화자에 있는 경우 음성적인 명령 행 위이며 시킴, 부탁, 요구, 허락, 등이 있고, 명령 수행의 이익이 청자에 있는 경우 양성 적인 명령 행위이며 충고, 위안, 초대 등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현대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 대조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토마이쯔엥까(2019), 부티엔마이(2021), 즈엥반팻(2022) 등이 있다.

토마이쯔엥까(2019)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구성을 비교했을 때 문장의 유형도 같이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양 언어의 명령문은 주어가 2 인칭이고 과거 시제 표지나 미래 시제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령문의 서술어는 동사만이 가능 하고 형용사나 '명사-이다'가 불가능하다는 양 언어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명령문의 공손 표지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지만 베트남어

에서는 'vui lòng(좀 - please), xin hãy(제발)'라는 양태 표지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부티엔마이(2021)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성분 표시 방법, 어순, 문장 종류에 따른 구성법 등에 대해 대조 분석하였다. 양 언어의 명령법 구성에 대해 한국어에서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동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명령문을 만드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문장 맨 앞에 'hãy'를 추가하거나 문장 끝에 어기 조사를 추가하거나 평서문과 같은 형식으로 느낌표와 결합하여 상승하는 억양으로 명령문을 만든다는 양 언어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또마이쯔엥까(2019), 부티엔마이(2021)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유형을 연구하면서 양 언어의 명령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최근에 양 언어의 명령문에 대해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는 즈엥반팻(2022) 뿐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법 문장을 대상으로 대조 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한국어 명령문의 특징과 베트남어 명령문의 특징을 설명하여 명령문의 주어, 서술어, 명령 형식, 부정명령문 등을 체계적으로 대조하면서 그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주어가 2 인칭 대명사, 2 인칭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3 인칭 대명사가 쓰일 수 있다는 공통점을 밝혔다. 그리고 차이점으로 베트남어 명령문에서는 청자가 높임의 대상일 때 주어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과 한국어 명령문에서는 동사만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나 베트남어의 명령문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에 의해 상대높임법이 실현되어 화자와 청자의 나이, 신분, 직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베트남어에는 어기 조사에 이런 문법적 표현이 없으며 베트남어 높임 표현에서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는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할 때 특수한 어휘 'xin mòi(초대하다)'와 존경어 'ạ(경어법)'를 사용한다고 알려졌다. 더욱이 부정 명령문에 주목하여 한국어 부정 명령문은 '말다'로만 성립되는데 베트남어의 부정 명령문은 한국어와 달리 특정한 문장 종결법이 없고 주로 'đừng(말다)', 'chớ(안 하면 좋다)', 'cấm(금지)' 등이 부정 명령문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즈엥반팻(2022)은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동사라고 해서 모두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살펴볼 때 그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은 즈엥반팻(2022)에서 분석하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동사라고 해서 모두가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베트남어에서 인지 동사가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쓰일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명령문은 청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화·청자 간에 긴장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청자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명령문의 공손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에 적용될 수 있는 공손 표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하고 대조를 진행하겠다.

1.6. 연구 구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1 장 - 서론에서는 연구 주제 선정 이유,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를 제시한다.

제 2 장 - 기본적 논의에서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의문문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정의, 분류, 구조 및 기능을 포함한다.

제 3 장 -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는 두 언어의 의문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며 해결책을 제안한다.

제 4 장 -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한계를 밝히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제 2 장 - 기본적인 논의

2.1 베트남어와 한국어에서의 문장 개괄

2.1.1 공손함에 대한 개념

공손함이란 말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공손함은 몸짓이나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특히, 명령문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언어와 문화에 따라 공손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상대방에게 요청을 할 때 공손함을 나타내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2.1.1.1.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공손 표지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공손 표지의 대조 분석한 결과를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공손 표지

한국어	베트남어
호칭어	대명사
높임 어휘	높임 어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태 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태 부사:
① 최소한의 시간의 의미: 좀, 잠깐, 한 번, 등	① 최소한의 시간의 의미: một chút, một tí, chút xíu, một lát, tạm, 등
② 최소한의 양의 의미: 조금, 좀, 등	② 최소한의 양의 의미: một chút, chút xíu, chút đỉnh, một ít, 등
③ 심적 양태 부사: 제발, 좀, 등	③ 심적 양태 부사: vui lòng(좀-please),
보조동사: '-아/어 주다', '-아/어 보다'	보조동사: hộ, giùm, giúp, cho, thử
상대 높임법	어기 조사
	수행 동사: mời, xin, xin phép
	존경어 'ạ'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명령문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공손 표지가 높임 어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태 부사와 보조동사가 있다. 한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베트남어에 대응하는 용법이 없다. 베트남어에서 상위자에게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존경어 'ạ'를 문장 끝에 넣을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 상대높임법의 다양한 등급과 용법의 기능과는 대조되지 못한다. 한편, 베트남어에서 어기 조사를 사용함으로써 명령의 강제성을 줄일 수 있으며 명령의 어감이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

비슷한 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호칭어와 베트남어의 대명사는 공통적으로 공손 표현의 역할이 있지만 베트남어에서 대명사의 중요성이 한국어의 호칭어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호칭어를 생략해도 괜찮고 상대 높임법으로 충분히 공손성을 실현할 수 있지만 베트남어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시작하면 불손한 행위로 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베트남어에서 수행 동사 “mòi, xin, xin phép”가 상대방을 향한 공손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1.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2.1.2.1 한국어 문장

모든 언어들은 각각 언어로서의 공통점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그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문법적 특성이 있고, 그 문법적 특성을 이용하여 수많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국어는 어순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적 특징으로서 주어 - 목적어 - 동사(서술어)어순을 가진 언어이다. 즉, 동사가 문장의 끝에 오는 ‘동사 문말 언어’이다. 일반적으로는 앞의 어순을 취하지만, 그 어순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문맥의 상황이나 구성에 따라 그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모든 문장들은 문장을 이루는 여러 성분들이 조합하여 이루어진다. 문장성분은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누어진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주성분에 속하고, 부속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속해져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최소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가 있어야 하며 목적어는 서술어에 따라 필 요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부속성분은 문장에서 주성분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와 부사어를 포함하고 있어 ‘수의적 2 성분’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주어, 즉, 체언이나 체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을 꾸며주는 요소들이기 때 문에 대개 생략이 가능한 성분들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생략하지 못하고 필수 적으로 써야만 하는 상황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문장성분들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격조사들이 존재한다. 조사는 체언 및 체언의 기능을 하는 성분에 결합하는 의존형식으로, 그 체언 성분이 다른 성분과의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의미를 한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 문장 안에는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들이 함께 사용된다. 한국어의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분류된다. 홑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으로 구성된 문장인 반면, 겹문장은 한 개 이상의 홑문장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홑문장이 여러 개가 이어져 겹으로 된 문장을 뜻한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는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홑문장이고, ‘나는 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것을 봤다.’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번 이상씩 들어간
접문장으로 볼 수 있다.

접문장은 다시 안은문장,안긴문장,이어진 문장 세 가지로
나뉘며,안긴문장에는 명사절,서술절,관형절,부사절,인용절이 속해
있고,이어진문장에는 대 등적인 문장과 종속적인 문장이
포함된다.안은문장은 둘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문방
바깥쪽에 있는 문장을 말하며,안긴문장은 안쪽에 있는 문장을 말한다.예를
들면,‘그는 내일 시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에서 ‘그는 들었다.’는
안은문장이고,‘시험이 있다.’는 안긴문장이 된다.

한편,이어진 문장은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문장이 연결어미를 통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을 의미한다.여기에 속하는 대등적인 문장이란 연결어미로 연결
된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으로,‘나는 숙제를 하고
동생은 잠을 잔다.’에서 연결어미 ‘-고’에 의하여 두 문장의 대등함을
보여주고 있다.이와 다르게 종속적인 문장은 연결어미에 의하여 앞 문장의
의미가 뒤 문장의 의미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을 말한다.예를 들자면,‘그는
힘이 세므로 (너는 그를)조심해야 한다.’에서 ‘-므로’의 연결어미로 연결되어
앞의 문장이 뒤의 문장에 종속되어 있는걸 보여준다.

2.1.2.2 베트남어의 문장

동양권의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어휘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 문법은 서양 언어학의 논점을 깊게 영향을 받은
이유로 한국어 문장 개념과 관점이 다르다.베트남 전통 문법에 따르면 문장
은 문법적으로 가장 완벽한 성분이다.문장 구조에는 절과 구가 있으며,말하
기와 쓰기 과정을 통해 구와 문장이 형성되는 것이지만 구는 충분한 의사 전
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와 관련이 있다.이 이론에 의해서 문장은 구와 다른 부분의 결합으로 구성
되어 있다.사실은 어휘나 한 개의 음절로 이루어지는 문장도 있다.

(5)a,cháy(불이 나다).

b,đi học(학교에 가다).

(5)예문을 보면 베트남어에서는 동사 하나만으로 문장이 될 수
있다.하지만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 동사의 뜻을 제대로 옮기면 한국어에서
이에 부합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이 이유 때문에 한국어 문장과 베트남어
문장이 다르다. 한국어는 교착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하고, 베트남어는 독립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서 이러한 조건이 필요 없다.

지금까지 문장 개념은 많이 다른 관점이 있다. 그러므로 양국의 언어에서
문장 형식을 다르게 볼 수 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나타느냐에 따라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뉜다.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내는 문장은 홑문장이고 두 번 이상 나타내는 문장은 겹문장이다.

(6)a, Cô ấy xinh đẹp :그 녀는 예쁘다.

그 녀 예쁘다

b, Tôi ăn cơm : 나는 밥을 먹다.

나 먹다 밥

c. Bố tôi đang đọc báo :우리 아빠는 신문을 읽고 있다.

우리 아빠 고있다읽다 신문

d, hôm qua ,tôi đọc sách ở thư viện : 어제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어제 나 읽다 책 에서 도서관

(6)예문을 보면 홑문장의 예이다. (6a)는 주어와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형식 문장이고 이러한 문장은 베트남어와 한국어 문장의 성분들이 동일한 어순이다. 주어는 문장 앞에 오고 서술어는 문장 뒤에 자리를 한다. (6b)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고 베트남어에서 이러한 문장은 주어'tôi'(나)'는 문장 앞에 위치를 하고 서술어는 동사 'ăn(먹다)'와 'cơm(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문장 안에서 목적어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위치를 한다. (6c)는 문장 안에 세제를 나타내는 부사'dang(고 있다)'이부사는 동사 앞아 위치를 한다.이러한 형식은 한국어에는 없다. (6d)는 문장 안에 시간 부사 'hôm qua(어제)',장소 부사'ởthư viện(도서관에서)'성분이 있다. (6)예문을 통해서 베트남어 홑문장의 유형을 볼 수 있다. 다음에 베트남어 겹문장을 살펴보기로 한다.베트남어 겹문장은 조건문, 원인 결과문, 양보문 등으로 나뉜다.

(7)a,nếu có tiền tôi sẽ mua nhà.

(절 1) (절 2)

돈이 있으면 집을 산다 .

(절 1) (절 2)

b,dù trời mưa tôi vẫn đi chơi

(절 1) (절 2)

비가 오더라도 나는 놀러 간다

(절 1) (절 2)

c,Vì đau chân nên tôi không đi học được

(절 1) (절 2)

다리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간다.

(절 1) (절 2)

(7)예문을 보듯이 (7a)는 조건문이다. (7b)는 양보문이고 (7c)는 원인 결과문이다.이 경우에는 각 예문은 두 절이 있다. (7a)는 뒤에 행동을 나타내려면

앞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돈이 있을 때)이를 보면 양 국의 어순의 차이점이 없다. (7b)는 베트남어에서 양보의 뜻이다. 베트남어 ‘dù,chodù(아/어도, 더라도,거니와)’로 표현할 수 있다. (7c)는 원인 결과문이고 연결‘nên do đó(으므로,니까,아서/어서,건데)’등으로 문장의 두 절이 연결되어 있다. 베트남어 문법에서는 문장의 종류가 있다. 다음에 문장의 각각 종류를 살펴 보겠다. 먼저 의문문을 보겠다.베트남어 의문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베트남어 의문문에서‘mấy(몇)’,‘baonhiêu(얼마)’,‘ai(누가,누구)’,‘cáigi(무엇)’,‘ởđâu(어디)’, ‘khinào(언제)’,‘tạisao(왜)’등으로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사람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과 단순한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 정 의문문이 된다.

- (8)a, Bây giờ là mấy giờ: 지금 몇시냐?
b,Hôm nay sẽ đi đâu: 오늘 어디 에 갈까?

(8)예문은 의문문의 예이다.다음은 명령문의 예이다.명령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문장이다.베트남어 명령문은 동사와 부정부사,동사와 명령부사를 결합함으로 구성된다.베트남어 ‘Hãy(으)세요,십시다)’,‘chớ(지 말다)로 표현할 수 있다

- (9)a,Hãy làm nhanh lên: 빨리 하세요.
(으)세요
b,chớ đến muộn: 늦게 오지마세요.
(지 말다)

감탄문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베트남어 문법에 서는 감탄사를 독립어로 본다.

- (10)a.Ồi lạnh quá : 아이고 ,추워라 !
b.Thật là đẹp quá đi: 진짜 ,예쁘다.

평서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진술하는 문장이다. 한국어 평서문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목적어가 위치하는 어순이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어 평서문은 주어가 맨 앞에 오고 서술어는 목적어 앞에 온다. 따라서 베트남어 평서문 어순은 주어-서술어-목적어 어순이다.

- (11)a.Hôm qua tôi đi học : 어제,나는 학교에 간다.
어제 나 가다 학교에
b.Thời tiết ở Việt Nam rất nóng :베트남의 날씨가 너무 덥다.
날씨 의 베트남 너무 덥다

2.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명령문

2.2.1 명령문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명령'이란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군에서 상급자나 상위 조직이 하급자나 하위 조직에 군사적 행위를 하게 함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명령문'에 사용되는 명령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대화 상대에 따라 상대 높임법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명령문의 정의에 대해 학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표 2 > 한국어 명령문의 정의

연구자	명령문의 정의
남기심·고영근 (1985:350)	화자가 청자에게 자기의 의도대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인데 명령형으로 성립된다.
채영희 (1993:154)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시킴의 개념이 언어로 표현된 율의 형식이다.
박영준 (1991:336)	명령문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언어적 표현'이 종결어미로 실현된 것이다.
서정수 (1996:412)	명령문은 의미 기능으로 볼 때 말하는 이가 듣는이에게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바라는 기능이 있는 본질적인 문장이며 지시형, 청원형과 허락형 따위의 명령법에 속하는 서법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문 말에 지니게 된다.
고성환(2003:25)	명령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명령문을 성립되기 위해 의미·화용적 적정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져야 한다.
김병건 (2014:110)	명령법은 들을이가 특정 행동이나 상태 변화를 하도록 시키는 의향법의 한 갈래이다. 명령문은 '행위 요구'의 의향법 어미인 명령법 어미에 의해 성립된다.

이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명령문을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며 명령형 종결어미에 의해 성립된다고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3). 서정수(1996:412)에 제시된 정의에서 허락문, 청원문 혹은 기원문을 명령문의 하위의 부류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성환(2003:25)에서 명령문의 정의 외에 의미·화행적인 적정조건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서 명령문은 보통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만, 그 화자가 수행되기를 원하는 행위가 있고 이러한 행동을 청자가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야 명령의 발화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2)고성환(2003:25)의 명령 화행 적정조건:

가.예비 조건: 청자가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화자가 믿는다.

또한, 화자는 청자보다 권위가 있어야 한다

나. 진지성 조건: 청자의 장차 행위를 화자가 원한다.

다. 명제내용적 조건: 청자의 장차 행위를 화자가 예견한다.

라. 기존 조건: 청자가 행위를 하게끔 화자가 시도한다.

이 적정조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예문을 명령문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13)가. 저 산을 움직이게 해 봐.

나.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해봐. 용돈 안 줄 거야.

(13 가)는 예비 조건에 위배되므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화자는 청자가 '산을 움직이 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6 나)에서 엄마는 자식에게 '놀이만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엄마는 자식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 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진지성 조건을 어기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해석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지금까지 명령문과 청유문을 같은 문장 유형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도 있었다(채영희 1984:380, 박영준 1994:26).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지만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령문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사적 특징에서도 청유문의 서술어가 어떤 시제나 양태 표시의 형태소와 결합할 수 없는 것과 부정 형식 '-지 말다'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명령문과 유사하다. 하지만 고성환(2003:38-42)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보아 명령문과 청유문은 서로 다른 상대높임법 의 종결어미를 가지고 이 둘의 종결어미가 서로 대치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어의 인칭도 서로 다른데 명령문의 주어가 언제나 2 인칭에 국한되는 것과 달리 청유문의 주어는 1 인칭이다. 김병건(2014:111)에서 명령법과 청유법은 '들음이 홀 로'과 '들음리와 같이'라는 발화 의도와 효과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게 다가 이익섭(2005:20)은 명령문의 서술어 자리에 동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청 유문에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명령문과 청유문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논의는 청유문을 독립된 문장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베트남어 명령문의 정의를 살펴볼 것이다. 베트남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동사가 활용하지 않는 언어이므로 명령문을 구별해 주 는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베트남어 문장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본래 베트남어 전통문법 차원에 서는 베트남어 문장 유형을 서술문, 명령문, 의문문과 감탄문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지 금까지 학교 문법서에서도 이런 분류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명령문은 베트남 어의 서술문과 혼동하기 쉬우며 단지 서술문의 일부일 뿐이라는 견해도 여전히 존재한 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대부분 명령문의 화용적 측면에만 의하여 결정했기 때문이다

명령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때는 형태적 측면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 점에서 지금까지 명령문에 관하여 진행했던 베트남인 연구자들은 명령문의 정의를 명령 문이 갖는 고유한 형태와 붙여 제시하였다.

베트남어에서는 'câu mệnh lệnh(명령문)'보다 'câu cầu khiến(청구문)'이라는 용 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본고는 한국어 명령문과 대조하고 있으므로 편의상으로 '명 령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에서 명령문과 청유문은 독자적인 문장 유형으로 간주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청유문은 '명령문'과 같은 유형으 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베트남어 명령문의 정의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 > 베트남어 명령문의 정의

연구자	명령문의 정의
Hoàng Trọng Phiến(1980)	명령문은 의미적으로 화자가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말함으로써 청자에게 행동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뜻이 있고 형 식적으로 명령 부사와 문말 억양으로 인식된다. 수행 동사 'mời, cho phép, cấm, không được' 등으로 다룬 문장은 명령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명령문으로 본다.
Hoàng Phê(1997)	명령문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문장' 이다.
Nguyễn Kim Thản(1997)	명령문은 화자의 의지를 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를 바라거나 어떤 '상태, 성질'을 가지기를 바라는 문장이다. 명령문은 명령 부사와 몇 가지 일정 한 수행 동사를 포함한다.
Diệp Quang Ban(2004)	명령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거나 실행해 주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xin, mong, đề nghị, yêu cầu, cấm, mời, khuyên' 등과 같은 명령의 의미가 담긴 수행 동사는 명령문의 형성에 역할을 하기도 한다.
Chu Thị Thủy An(2002)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어떤 상태, 성질을 가지기를 요구하는 문장이다. 수행문은 명령의 의미를 가진 수행 동사를 포함하면 명령문으로 볼 수 있다.

포괄적으로 연구자들은 명령문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비슷하게 나타남을 보인다. 즉, 명령문은 화자가 원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Nguyễn Kim Thản(1997)와 Chu Thị Thủy An(2002)에서는 '행위' 외에 '상태, 성질 을 가지기'를 요구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로 제시하였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명령문은 명령 부사, 어기 조사와 수행 동사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Chu Thị Thủy An(2002:7)과 Đào Thanh Lan(2002:17-46)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은 명령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제시하였다. 베트남어 문법서에서 '명령문의 표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14)가. 명령 부사: Hãy(긍정 명령 부사), đừng(부정 명령 부사), chớ(부정 명령 부사)

나. 명령문의 어기 조사: đi, thôi, nào, nhé, với, lên, vào, xem, đã 등
다. 수행 동사: cấm(금지하다), cho phép(허락을 주다), đề nghị(요청하다), khuyên(충고하다), nhờ(부탁하다), mời(초대하다), yêu cầu(요구하다), xin phép(허락을 구하다), 등

라. 조동사: nên(해야 하다-should), phải(해야 하다-have to), cần(할 필요가 있다-need to)

2.2.2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실현 양상

앞에서 논의했던 명령문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명령문의 표현 형식에 초점을 두어 양 언어의 명령문은 어떤 실현 양상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2.2.1 한국어 명령문의 실현 양상

한국어 명령문의 형식은 주로 명령형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한국어에서 종결어미는 문장 유형을 분류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높임법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명령형 종결어미 목록을 설정할 때는 상대높임법 등급에 따라 명령형 종결어미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예문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15)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십시오체)

나. 잠시만 기다리오. (하오체)

다. 잠시만 기다리게. (하게체)

라. 잠시만 기다려. (해라체)

마. 잠시만 기다려요. (해요체)

바. 잠시만 기다려. (해체)

일반적으로 명령형 종결어미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그리고 '해체'의 6 등급으로 나뉜다. 그러나 명령형 종결어미를 설정하는 목록은 연구자마다 견해가 달라서 통일된 명령형 종결어미 목록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이유는 한 종결어미가 여러 가지 문장 유형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다른 이유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아닌 '-도록', '-게' 등과 같은 연결어미가 현대 한국어에서 명령 표현으로 두루 쓰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아래와 같은 명령형 종결어미의 분류를 선정하고 한국어 명령문의 실현 양상을 논의하겠다.

<표 4> 명령형 종결어미의 분류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으)십시오 -(으)소서, -(으)옵소서	-(으)오, -구려	-게, -게나	-아/어/여 라, -(으)려무나, -(으)렴, -(으)라	-아/어/여 요, -지요	-아/어/여, -지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 등급에 해당되고 청자가 자신보다 상위자일 때 쓰이는 등급이며 '-(으)십시오'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으)십시오'는 명령문에 쓰일 때 '명령'의 의미보다는 '요청'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 외에 '하십시오체'에서 종결어미 '-(으)소서'와 '-(으)옵소서'도 있다. 보통 이들은 신이나 신적 존재, 또는 태곳적 왕과 같은 대상을 명령 수행의 주체로 삼아 사용되는 종결어미이며 '기원'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으)소서'와 '(으)옵소서'는 예스러운 어미로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고 시적 표현, 사극에서 주로 쓰인다

(*)서정수(1994:349-350, 356)에서는 명령문의 하위 범주로 청원문 또는 기원문을 설정하여 '하소

(15) 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 저에게 더욱 더 강한 힘과 용기를 주소서.

다. 불쌍한 백성을 굽어 살피옵소서. (이익섭 2005:193)

'하오체'와 '하게체'도 현대 한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오체'는 주로 일정한 관계에서만 쓰이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나이 든 선배가 후배에게, 직장 상사가 하위 직원에게 주로 쓰인다. '하오체'에서 종결어미 '-(으)오' 외에 '-구려'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구려'의 뜻풀이는 상대방에게 권하는 태도로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라고 한다.

(16) 가. 늦었으니 어서 가오.

나. 늦었으니 어서 가구려.

'하게체'에서는 종결어미 '-게'와 '-게나'가 속하며 결혼할 나이가 된 사람이 자식에 게,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조교 정도의 제자에게, 장인과 장모가 사위에게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게나'는 '-게'보다 더 친근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지수 (2016:25-39)에서 '-게나'는 명령형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으나 '-게'는 명령형뿐만 아니라 의문형 어미로도 사용되므로 '-게'보다 '-게나'는 명령형 전용 어미로서의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고 하였다.

(17) 가. 청소 좀 하게.

나. 청소 좀 하게나.

'해라체'는 화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지위가 낮은 청자에게 쓰인다. '해라체'의 명령형 종결어미 중에서 '-아/어/여라'가 명령문의 대표적인 종결어미이다. '-(으)렴'과 '-(으)려 무나'는 보통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게'와 '-게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으)려 무나'는 '-(으)렴'보다 더 친근한 의미를 갖는다.

(18) 가. 창문을 닫아라.

나. 가고 싶으면 가렴.

다. 가고 싶으면 가려무나.

또한, 이종희(2003:101)에서 '허락'의 의미 외에 '시킴'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19) 가. 이리 와서 이 책이나 좀 읽어 보려무나.

나. 어른들께 어서 인사를 드리렴.

이종희(2003:101)

위의 (19 가,나)에서는 '허락'의 의미가 아닌 '시킴'의 의미로 보인다. 또한, '-(으)려무 나'와 '-(으)렴' 대신 '-아/어라'로 바뀌어 쓰일 수 있다. 다만, '-아/어라'로 쓰일 때, 명령의 느낌이 강하지만 '-(으)려무나'와 '-(으)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청자를 고려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유하는 느낌이 든다는 차이점이 있다.

'해라체'의 또 다른 특징적인 종결어미는 '-(으)라'이다. 한국어 명령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명령문 또는 일반 명령문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 명령문이다. '-(으)라'는 간접 명령문의 종결어미이다. '-(으)라'는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보다는 공개적 상황이나 간접매체를 통한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나 신문, 잡지와 같은 문어체의 양식에도 이러한 표현이 두루 쓰인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청자가 모든 계층에 걸치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에서 종결어미 '-(으)라'는 중화된 형식이다(고영근 1976:35-36).

(20) 가. 물음에 알맞은 답의 기호를 고르라.

나. 외국 여행 통제하라.

고영근(1976:35-36)

마지막으로 '해요체'와 '해체'의 속하는 '-아/어요', '-지요', '-아/어', '-지'는 일상 생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명령형 종결어미이다. '해요체'는 '해체'와 존대의 뜻을 나타 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된 형태이고 '해체'보다 더 높은 표현으로 보인다. 그 중에 '-지'와 '-지요'는 '-아/어'와 '-아/어요'보다 부드럽게 명령하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명령' 보다는 '제안' 또는 '권유'의 느낌이 있다(이종희 2003:103). '해요체'와 '해체'는 모두 문장 유형에서 다 쓰일 수 있으므로 명령형 전용어미로 보일 수 없다. 그들은 보통 명령문에 쓰일 때 발화 상황 혹은 억양, '제발, 부디, 좀' 등과 같은 양태 부사의 도움으로 실현된다.

(21) 가. 자네도 같이 앉아요.

나. 자네도 같이 앉지요.

다. 이제 그만 일어나.

이제 그만 일어나지. 이상에서 제시한 명령형 종결어미의 체계 외에 '-도록', '-것', '-든가/든지' 형식이 많은 연구에서 명령형 종결어미 범주에 포함 가능한지가 논쟁의 주제였다. 하지만 그 어미들 가운데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준으로 '-도록'은 '해라체의 자리에서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라는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록'은 '-아/어라'보다 덜 단 호한 어감이 있다.

(22) 가. 오늘 6 시까지 숙제를 제출하도록.

나. 구매하기 전에 기계의 성능을 확인하도록.

'-르 것'에 대해서 박금자(1987:78-79)는 명령법 고유의 어미는 아니나, 명령표현의 어미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르 것'은 불완전문의 형식을 가지며 생략된 상위문의 동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지적할 수 없다. 고성환(2003:136)에서 '명령하다/부탁하다/요 청하다' 등을 복구한 문장과 '-르 것'으로 종결된 문장이 서로 대치되어 쓰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하였다.

(23) 가. 사람의 이름은 다 대문자로 쓸 것.

나. 이 길에서 장사하지 말 것.

'-든지/든가'는 원래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라는 뜻이 있는데 이지수(2016:32-35)에서 '-든지/든가'도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본래 연결어미이지만 종결어미화했거나, 종결어미화하는 과정 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4) 가. 그럼 하지 말든지.

나.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시든가.

이지수(2016:34)

통사적 측면에서 볼 때, '-든가/든지'는 부정 형식에서 '-지 않다, 못, 안'과 결합하지 않고 '-지 말-'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명령형 종결어미의 성격과 비슷하다. 또한 '-든 가/든지'는 연결어미로 사용될 때 후행 동사의 자리에는 '한다'와 같은 평서형이나 '하니?'와 같은 의문형이 올 수 없고 '해라'와 같은 명령형만이 올 수 있다.

2.2.2.2 베트남어 명령문 실현 양상

1) 명령 부사 'hãy, đừng, chớ'로 실현되는 명령문

명령 부사 'hãy, đừng, chớ'는 명령문의 대표적인 표지이다. 그 중에 'hãy'는 긍정 명령문에 주로 쓰이며 'đừng, chớ'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부정 명령문에 주로 쓰인다. 문장에서 'hãy, đừng, chớ'는 서술어 앞에 위치한다. 명령 부사 'hãy, đừng, chớ'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문장을 명령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때 'hãy, đừng, chớ'가 갖는 의미의 강제성은 중립적이며 주로 요청, 제안, 충고, 등과 같은 화행에 사용된다. 명령 부사 'hãy'는 요청, 명령, 충고 등과 같은 화행에서 단호한 어감을 가지지만 부탁, 청구, 제안 등과 같은 화행에서는 협상하는 어감을 가진다. 또한, 초대를 표현할 때 'hãy'와 결합하면 친밀감을 조성하는 어감을 준다. 'đừng, chớ'는 명령문의 구성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đừng'은 주로 요청, 요구, 제 안, 충고, 의뢰와 같은 화행에 주로 쓰이나 'chớ'는 주로 충고 화행에 쓰인다(Chu Thị Thủy An 2002:12)

(25) 가. Hãy nghiêm túc chấp hành luật lệ giao thông.

→ 교통 법규를 진지하게 집행하십시오.

가. Đừng hiểu lầm!

→ 오해하지 마세요.

나. Chớ gội đầu vào ban đêm.

→ 밤에는 머리를 감지 마세요

2) 어기 조사로 실현되는 명령문

베트남어의 어기 조사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명령문에 주로 사용하는 어기 조사로 'đi, nhé, nào, thôi, với' 등을 들 수 있다. Nguyễn Anh Quế(1988)은

베트남어는 '품사 변환 형상'이 많이 일어나는 언어로 명령문의 어기 조사는 원래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데 명령의 구성에서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어기 조사는 양태 조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발화의 명령 의미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즉, 서술문 끝에 어기 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서술문을 명령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26) 가. Con quét nhà đi.

→ 집 청소해.

나. Lát nữa anh phơi đồ nhé!

→ 이따 빨래 좀 말려요.

위의 (26)에는 만약 어기 조사 'đi, nhé'가 없으면 그 문장들은 명령의 효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또한, 어기 조사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 다른 어기 조사를 사용하면 표현하는 뉘앙스가 달라진다. 어기 조사 'đi'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기 조사가 명령의 강제성을 줄이면서 발화를 조금 더 부드럽고 친밀하게 만든다. 어기 조사 'đi'는 명령의 강제성을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표현되는 뉘앙스가 달라진다. 또 다른 특징적인 어기 조사는 어기 조사 'thôi'이다. 'thôi'은 '청유'의 의미를 가져 한국어의 청유형 종결어미 '-자'처럼 기능한다.

(27) 가. Ăn cơm đi.

→밥 먹어.

나. Ăn cơm thôi.

→밥 먹자.

(27)을 보면 'Ăn cơm đi(밥 먹어)'에서 어기 조사 'đi'로 끝맺을 때는 명령 수행자는 청자만이라고 의도하나 'ăn cơm thôi(밥 먹자)'에서 어기 조사 'thôi'가 실현될 때는 청자뿐만 아니라 화자도 명령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3) 수행 동사로 실현되는 명령문

베트남어에서는 수행 동사로 이루어진 명령문 혹은 명령 수행문 9)은 대화에서 직접 적으로 쓰일 수 있다. Nguyễn Thị Thanh Ngân(2012:4-20)에서 수행 동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들은 '이지적인 수행 동사', '감정적인 수행 동사' 그리고 '중립적인 수행 동사'이다.

<표 5> 베트남어 명령문의 수행 동사 분류(Nguyễn Thị Thanh Ngân 2012:4-20)

분류	행위	수행 동사
이지적인 수행 동사	명령 요청 금지 강요 부과	ra lệnh(시키다) yêu cầu(요구하다) cấm(금지 하다) đề nghị(요청하다) 등

	경고 요구	
감정적인 수행 동사	간청 부탁 탄원 기원 초대	xin(간청하다) van(간청하다) nhờ(부탁하다), mong(기원하다) lạy(탄원하다) xin phép(허락 을 구하다) mời(초대하다) 등
중립적인 수행 동사	충고 지도 제안 권고 허용	khuyên(충고하다) kiến nghị(제안하다) cho phép(허용하다) 등

베트남어에서는 명령 수행문은 서술문의 형식과 같으므로 Chu Thị Thủy An(2002:16)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 수행문을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 건은 명령 수행문과 서술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화자 또는 명령하는 사람	수행 동사	청자 또는 명령을 받는 사람	명제 내용
Chúng tôi 우리	yêu cầu 요구하다	anh 당신	hợp tác. 협력하다
→우리는 당신에게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 (28) 가. 문장의 전달되는 행위는 수행 동사의 의미에 달려 있다.
나. 명령 수행문의 명제 내용은 수행 동사를 수식해 주는 보어에 나타난다.
다. 명령 수행문의 주어가 화자이고 주어의 인칭이 반드시 1 인칭이나 1 인칭 복 수에 국한되고 주어 생략이 가능하다
라. 아무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허사 'đã, đang, sẽ, sắp'나 시제 부사 'vừa (방금), mới(아까)' 등이 수행 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마. 부정 양태 부사 'không, chưa, chẳng', 등과 의지 양태 부사 'suýt, định' 등이 수행 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명령 수행문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9) 가. Chúng tôi yêu cầu anh hợp tác.

우리/요구하다/당신/협력하다

→ 우리는 당신에게 협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Ba cấm con hút thuốc.

아빠/금지하다/너/담배 피우다

아빠는 너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해요.

→ 담배 피우지 마

다. Đề nghị tất cả đứng lên chuẩn bị làm lễ chào cờ.

요청하다/모두/일어나다/준비하다/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를 요청합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를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 Em nhờ chị ra chợ mua giùm em bó bông.

동생(1 인칭 대명사)/부탁하다/언니/가다/시장/사다/꽃다발

저는 언니에게 시장에 가서 꽃다발을 사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언니, 시장에 가서 꽃다발 좀 사다 줘요.

라. Xin các anh tha cho anh. (Nguyễn Mạnh Tuấn - 『Đời hát rong』 문학 작품)

간청하다/형님들/용서하다/그 형님들, 그를 용서하는 것을 간청합니다.

→ 형님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동사 'nên(해야 하다-should), phải(해야 하다-have to), cần(할 필요가 있다 -need to)'로 실현되는 명령문 'nên(should to), phải(have to), cần(need to)'는 자체가 명령의 효력을 가짐으로 써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 'Phải(have to)'은 '당위'의 의미를 가지는데 'nên(should to), cần(need to)'보다 명령의 강제성이 더 높다. 'nên, cần'은 종종 충고와 같은 행 위로 사용된다.

(30) 가. Cậu nên mua thuốc bổ uống.

너/should to/사/영양제/먹다

→ 너 영양제 사 먹어야 해.

나. Anh phải đi với tôi đến nhà nó chiều nay.

너/have to/가다/같이/나/그의 집/오늘 오후

→ 오늘 오후에 나랑 그의 집에 같이 가야 해

이상으로 보았듯이 베트남어 명령문에서 명령문의 표지 즉 명령 부사, 어기 조사, 수행 동사와 조동사로 실현되는 양상은 네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 명령문에서 명령문의 표지가 두 개 이상 결합되는 양상도 찾을 수 있다.

다음 (31)를 살펴보자

(31) 가. Đừng ăn quá nhiều đồ cay nhé. (명령 부사, 어기 조사)

명령 부사/먹다/너무/많이/매운 음식/어기 조사

→ 매운 음식을 많이 먹지 마

2.3.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특징 대조

2.3.1.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주어 대조

2.3.1.1. 주어의 출현 여부

1) 한국어

명령문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주어가 종종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어서 명령 수행자가 청자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명령문에서 주어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다. 서정수(1996:347)에서는 명령문은 듣는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기능 이 본질적인 것이므로 그 듣는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행동자인 듣는이는 명령문 구조에서 주어에 해당하며 명령문 성립의 필수요건이라고 명시하였다.

(32) 가. 밥 먹어. 가'. 민수야, 밥 먹어.

(33) 가. 여기서 내려 주세요. 나. 기사님, 여기서 내려 주세요.

(32,33)에서 보듯이 발화의 청자인 '민수야, 기사님'은 명령 수행의 대상이며 명령문 주어를 실현하지 않아도 발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주어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주어가 실현되어야 하 기도 한다. 위의 (32)에서 보듯이 발화 장면에서 민수와 어머니 두 명만 있으면 주어진 '민수야'는 추가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발화 장면에서 민수의 형이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밥 먹어'라는 명령의 지시 대상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 아닌 민수에게 밥을 먹는 행동을 요청할 때 '민수야'라는 주어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

주어의 출현 여부에 대해서 고성환(2003:49-66)은 '주어 생략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4) 명령문의 주어 생략 조건:

가. 명령문에서 발화 장면의 청자가 모두 명령 수행자일 경우

나. 명령문에서 호격어가 실현되고 호격어와 주어의 지시 대상이 일치하며 또한 주어에 배타적 대립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다. 명령문에서 명령 수행의 주체를 한정하는 주제어가 실현된 경우

이상의 논의를 살펴본 바 한국어 명령문의 주어 출현 여부는 통사적인 조건과 의미 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사적 조건에서는 주어의 지시 대상 과 명령 수행의 대상이 같거나, 호격어가 실현될 때 호격어의 지시 대상과 명령 수행의 대상이 같으면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5) 가. 너 수저 하나 갖고 와.

가'. 수저 하나 갖고 와.

나. 당신 그거 알아서 해라.

나'. 그거 알아서 해라.

다. 모두 저를 따라가세요.

다'. 저를 따라가세요.

위의 (35)에서 보듯이 명령문의 주어가 '너, 당신, 모두'인데 한 명인 경우(너, 당신) 와 여러 명인 경우(모두)에서도 명령 수행의 대상이 되므로 명령문의 주어가 출현하지 않아도 된다.

(36) 가. 민수야, 수저 하나 갖고 와.

가'. 민수야, 너 수저 하나 갖고 와.

나. 여러분, 차에 오르세요.

나'. 여러분, 모두 차에 오르세요

다. 영희 옆에 있는 여자 학생, 먼저 예기해 보라.

다'. 영희 옆에 있는 여자 학생, 자네 먼저 예기해 보라.

(36 가,나,다)의 호격어와 주어의 지시 대상이 각각 '민수야, 여러분, 영희 옆에 있는 여자 학생'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주어를 실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명령문에서 명령 수행의 대상을 한정하는 주제어는 보통 명령 수행의 대상이 다른 대상과 대조적인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문에서 주제어의 지시 대상은 언제나 주어의 지시 대상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37) 가. 민수는 잠깐 남아 있어라.

나. 자네들은 먼저 가게.

다음은 의미적 조건에서 추가적인 의미 부여 여부에 따라 주어가 실현되는 것이다. 즉 주어에 추가적인 의미가 없으면 주어가 생략될 수 있는 반면에 주어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하면 주어가 나타나야 한다. 보통 발화 장면에서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청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대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주어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문에는 한정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어에 의미를 더 보충하므로 주어가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

(38) 가. 질문이 있는 학생은 잠깐 남아 있어라.

나. 잠깐 남아 있어라.

(38)에서 본 바와 같이 만약 주어인 '질문이 있는 학생'은 나타나지 않으면 화자가 의도한 청자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없다. 다음 경우에는 호격어의 지시 대상은 주어의 지시 대상과 일치하지만 추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나타나는 것이다.

2) 베트남어

일반적으로 베트남어에서는 명령문의 경우 주어생략문의 출현 빈도가 다른 문장 유형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명령문의 주어 생략이 한국어의 경우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베트남어 명령문에서는 주어 출현 여부가 통사적이나 의미적인 조건보다 화용적인 조건에 초점을 두어 결정된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명령문의 주어가 동물, 사물이 아닌 사람만이 가능하다 (Chu Thị Thủy An 2002:6).

(39) 가. *Xoài ơi, mau chín đi.

망고야, 빨리 익어라.

나. *Bọn gián kia, đừng chui vào nhà ta nữa.

바퀴벌레야, 내 집에 들어오지 마.

(39 가,나)에서 명령 표시 어기 조사'di'와 명령 부사 'đừng'가 나타나지만 명령 수행의 대상인 '망고, 바퀴벌레'가 사람이 아닌 사물과 동물이다. 이런 문장은 아예 쓰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해석되지 않고 기원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Chu Thị Thủy An(2002:10)는 베트남어 명령문의 주어 출현 여부가 명령문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문장의 공손성과 양태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베트남어 명령문에는 청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주어가 실현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어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한국어 명령문의 주어 생략 조건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인다. 먼저 주어의 출현 여부가 문장의 공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40) 가. Com nấu xong rồi đấy. (Con) Ăn nhanh rồi đi học đi.

밥 다 됐어. (너) 빨리 먹고 학교에 가.

나. Ba đợi một chút nhé.

아빠 잠깐만요.

나'. *Đợi một chút nhé.

잠깐만.

위의 (40 가)는 주어인 'Con'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이다. 화자인 '엄마'가 청자인 '아들'에게 '밥 먹고 학교에 가'라는 행동을 요청할 때,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주어가 실현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40 나)에서는 주어인 '아빠'를 생략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화자가 아들이며 아랫사람이고 청자가 아버지이며 윗사람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어 대화에서는 주어 없이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 없는 표현이므로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대화할 때 공손한 표현을 하기 위하여 주어를 반드시 사용해 야 한다. 이에 따라 (40 나)에서는 주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만약에 (40 나')처럼 주어를 실현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의사소통에서의 대인 관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단수의 주어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복수의 주어인 경우를 알아보고자 한다.

(41) 가. (Các trò) đọc theo thầy nào.
 애들아, 따라 읽어라.
 나. Mời các chú uống trà ạ.
 삼촌들, 차 드십시오.

(41)에서 (41 가)는 선생님과 학생들, (41 나)는 조카와 삼촌들의 대화이다.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주어가 생략되어도 문제가 없는 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동을 요청하면 주어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42) 가. Quý khách vui lòng hãy đọc kỹ hướng dẫn trước khi sử dụng.
 고객님,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 잘 읽어 주십시오.
 나. Trước khi vào rạp, mọi người vui lòng xếp hàng vào đi ạ.
 여러분, 입장하기 전에 줄을 서주세요.

(42)은 공공 장소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이에 행동을 요청할 때 상대방에 예의 바르게 하려면 주어가 표시되어야 하는 규칙이 있다.

다음은 주어의 출현 여부가 문장의 양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 다. 위의 예문을 통해서 명령문 주어의 출현 여부가 문장의 공손성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베트남어에서 주어 출현 여부는 공손성의 정도를 달리하는 기능도 있다. 이때 공손성의 정도에 따라 발화에 나타나는 양태의 의미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공손성이 강화되면 명령의 강도가 완화되는 반대로 공손성이 완화되면 명령의 강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때 발화의 주제와 목적 또는 화자의 감정 상태 등이 공손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3) 가. Đừng hút thuốc nữa!
 담배 피우지 마!
 나. Con đừng hút thuốc nữa!
 너 담배 피우지
 (44) (Bạn ơi,) cho mượn cây bút nhé.
 친구야, 펜 빌려줘.

(43 가)는 금지로 해석되는 표현이다. 화자는 청자가 '담배를 끊는 것'을 수행해야 한 다는 행위를 강조하여 청자에게 공격적인 느낌을 준다. 이때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43 나)처럼 주어인 'con'을 추가되어 명령을 부드럽게 만들며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이때 화자는 단지 '담배를 끊는 행위'를 바라며 이 문장은 금지가 아닌 충고로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를 추가함으로써 '명령의 의미'에서 '충고의 의미'로 바뀌었음을 보인다.

한편, (44)을 살펴보면 화자가 청자에게 '펜을 좀 빌리는' 행위를 부탁할 때 친근함 을 표시하기 위해 주어가 추가된다. 만약에 주어가 없는 경우 화자와 청자가 친한 친구 의 사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요청 행위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청자가 화자에게 펜을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자가 '명령의 의미'를 피하기 위하여 주어를 사용하여 '부탁의 의미'로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45) 가. Đi ra ngoài!

나가!

나. Anh đi ra ngoài!

너 나가!

(46) 가. Bên trái, quay!

좌향 좌!

나. Nghỉ! Nghiêm!

열중쉬어! 차렷!

(45)은 명령문 표지 없이 동사가 단독적으로 구성되는 명령문이다. (45 가)는 주어가 생략될 때 '나가'라는 명령은 화자가 화가 났다는 의미나 급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나 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45 나)처럼 주어가 추가된다면 그런 의미가 약 해지고 화자가 청자에게 '나가'라는 것을 바라지만 공손히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다.

(46)은 군대에서 두루 사용되는 발화이며 한국어나 베트남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청자가 반드시 자기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의도할 때 화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표현하 기 위해 주어가 흔히 실현되지 않는다. 다음 경우에는 발화의 공손성과 양태의 의미와의 관련이 없이 주어가 실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7) 가. Tôi mình đi chợ đi.

우리 시장에 가자.

나. Đi chợ đi.

시장에 가.

(47)는 주어가 추가되지 않으면 명령 수행자가 누구인지 헷갈릴 수 있다. 왜냐하면 베트남어 명령문은 청유문도 포함되며 주어의 인칭이 1 인칭 복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의 (47 나)을 보듯이 화자가 '시장에 가'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시장에 혼자 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화자가 '같이 가'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47 가)처럼 주어인 '우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2.3.1.2. 주어의 인칭

1) 한국어

한국어 명령문은 주어가 2 인칭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주어가 표면 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것은 논리상으로 2 인칭, 즉 청자로 여긴다. 그러나 주어가 표 면에 나타났을 때 항상 2 인칭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 인칭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의미상으로 2 인칭으로 해석된다

Aikhenvald(2010:76)에서는 명령문에 나타나는 인칭 표현의 경우 2 인칭이 전형적인 명령문이며 1 인칭과 3 인칭은 비전형적인 명령문, 다시 말해 2 인칭과 다른 의미를 표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2 인칭에 해당하는 명령은 직접 명령형이라고 하는 반면에 1 인칭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유형이라고 하였으며 3 인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접 명령형이라고 하였다(크라우머 와니다 2018:119 재인용).

이어서 한국어 명령문과 인칭 범주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인칭별로 검토해 보 고자 한다. 첫째, 1 인칭 단수와 복수가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 (48) 가. *내가 학교에 가라.
나. 어디 보자. (자신에게)
다. 정신 좀 차려. (자신에게)
(49) 가. 우리가 학교에 가자.
나. *우리가 학교에 가라.

(48 가)는 화자가 자신에게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48 나,다)과 같은 경우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박금자(1987:71) 의 논의에 따르면 화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혼잣말이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때 화자가 마음속에 또 다른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어가 2 인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49 가)에서 1 인칭 복수의 주어인 '우리'가 쓰일 때 명령의 의미가 성립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 이런 경우는 명령문으로 처리하지 않고 청유문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서술어 에 청유형 종결어미 '자'를 취한다. 만약에 명령형 종결어미 '아/어라'를 취하면 (46 나)처럼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둘째, 2 인칭 단수와 복수가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 (50) 가. 너는 학교에 가라.
나. 자네들은 책을 열어 보게.

위의 (50)는 주어가 '너, 자네들'로 2 인칭 대명사이다. 한국어에서 2 인칭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가 가장 대표적인 명령문의 특징이어서 위와 같은 문장은 명령문이 틀림 없다.

- (51) 가. 민국이 앉아 있어라.
나.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잠깐 남아 있어라.

(51 가)는 명령 수행의 주체 '민국'을 주어로, (51 나)는 청자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줄 수 있는 한정어를 가진 한정 명사구 '질문이 있는 학생들'을 주어로 쓰고 있다. 이들 이 발화 장면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없다. (51 가)는 '민국이 너 앞 아 있어라', (51 나)는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자네들 잠깐 남아 있어라'로 해석될 수 있다. '너'와 '자네들'과 같은 2 인칭 대명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은 발화 장면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2) 가. 여보, 전화 좀 받아 줘.

나. 선생님, 이쪽으로 가십시오.

(52)은 주어가 2 인칭으로 지칭될 수 있는 호격어가 쓰인 문장이다. '여보'는 부부 사 이에 쓰인 호칭어이고 '선생님'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쓰인 호칭어이다. 임홍빈 (1983:113)은 호칭어는 2 인칭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화자가 호칭어를 쓰는 이 유는 청자를 발화 장면에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청자는 이미 발화 장면에서 존재하고 있어 화자는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도 하고, 복수의 청자 중 특정한 청자를 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52)은 호격어의 지시 대상과 명령 수행의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이지만 다음과 같은 호격어의 지시 대상과 명령 수행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53) 가. 철수야, 오늘은 너하고 재혁이가 좀 기다려라.

나. 김 중위, 김 중위와 1 소대가 A 지역을 맡도록.

(고성환 2003:73)

(53 가)에서 호격어의 지시 대상인 '철수'와 명령 수행자의 대상인 '너와 재혁' 즉 '철 수와 재혁'이 같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53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호격어의 지시 대상 인 '김 중위'와 명령 수행자인 '김 중위와 1 소대'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혁' 과 '1 소대'인 대상이 발화 현장에 있지 않아서 논리상으로 3 인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 긴다. 그렇지만 고성환(2003:73)의 논의에 따르면 복수의 지칭 대상에 청자와 제 3 자만 포함되게 되면 이들을 통칭할 때 2 인칭 복수인 '너희들이나 '당신들' 등으로 지칭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51 가)는 '너+ 재혁이'는 '너희들'로 지칭하게 되고 (51 나)는 '당신 + 1 소대'는 '당신들'로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51)와 같은 경우 모두 2 인칭이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3 인칭 단수와 복수가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한국어 명령문에서 3 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쓰일 수 없는 것은 일반적이다.

(54) 가. *그가 열심히 해라.

나. *그 여자가 책 좀 빌려줘.

보통 3 인칭은 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제삼자, 즉 발화 현장에 있지 않는 대상이라는 말인데 명령문에서 실현될 때 3 인칭을 사용해도 청자를 가리킬 수 있다.

- (55) 가. 누가 좀 도와줘라.
나. 아무도 말하지 마라.

한국어에서 '누구, 아무'와 같은 미지칭과 부정칭 대명사는 3 인칭 대명사로 분류된 다. 하지만 명령문에 쓰일 때 3 인칭이 아닌 2 인칭으로 보인다. 복수의 청자가 있는 발 화 장면에서 화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청자라고 정확히 한정하지 못하고 청자이면 어떤 사람이나 무방하다고 판단할 때 미지칭이나 부정칭 대명사를 쓴다(박금자 1987:71). 따라서 (55 가)는 '너희들 중 누가 좀 도와줘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55 나)는 '너희들 중 아무도 말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상 측면에서 미지칭이나 부정칭 대명사가 주어의 자리에 올 때 3 인칭이 아닌 2 인칭으로 보아야 한다.

- (56) 가. 청년이여, 눈을 뜨라. (임홍빈 1983:115)
나. 교향악단이여, 음악을 멈추라. (임홍빈 1983:118)
다. 정부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라. (박금자 1987:70)
라. 총장은 물러나라. (고성환 2003:68)

한국어에서는 '하라체'를 사용할 때 간접명령문이라고 하며 청자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고 추상적인 대상 혹은 공개적인 상황에 간접매체를 통한 경우에 사용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모두 청자가 명령 수행자 혹은 진정한 청자가 아닐 수 있는데 박금자 (1987:71)의 관점에서는 화자가 명령을 수령하게 될 진정한 청자를 방관자 청자 (bystander)와 구별하기 위해 3 인칭 주어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의 (56)에서 보듯이 주어인 '청년, 교향악단, 정부, 총장'이 역시 특정한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며 3 인칭을 씀으로써 진정한 청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주어가 문법상으로 3 인칭으로 나타나지만 의미상으로는 2 인칭으로 해석된다.

2) 베트남어

베트남어의 인칭대명사가 1, 2, 3 인칭의 3 개 단수와 복수로 구분되는 것은 한국어와 거의 비슷하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칭대명사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6 > 베트남어의 인칭대명사 체계

인칭		한국어	베트남어
1 인칭 대명사	단수	나, 저	Tôi, tao, tớ, ta, mình
	복수	우리, 저희	chúng tôi, chúng tao, chúng tớ, chúng ta ¹⁶), chúng mình, mình
2 인칭 대명사	단수	너, 당신	mày, mi, bay, mình(부부 사이)

	복수	너희들, 당신들	chúng mày, chúng bay, chúng mi
3 인칭 대명사	단수	그분, 그녀, 그 등	nó, hắn, y, gã, cô ấy, anh ấy 등
	복수	그분들, 그녀들, 그들 등	chúng nó, họ

그 외에 베트남어에서 1 인칭과 2 인칭을 가리킬 수 있는 용어는 대명사가 쓰일 뿐만 아니라 친족, 직함, 칭호 등을 나타내는 명사가 쓰이기도 하며 이를 임시 대명사라고 부른다. 이런 점은 한국어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장님, 출발하시죠'에서 '엄마', '사장님'이 1 인칭과 2 인칭을 가리키는 명사로 쓰임이 베트남어 와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호칭어인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인칭대명사이다.

Chu Thị Thuỷ An(2002:11)에 따르면 베트남어 명령문에서 명령 수행자를 가리키는 주어는 대명사이든 명사이든 반드시 1 인칭 복수나 2 인칭에 국한되며, 1 인칭 단수와 3 인칭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베트남어 명령문과 인칭 범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인칭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1 인칭 단수와 복수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57) 가. *Tôi đi nấu cơm đi.

*나 가서 밥해라.

(58) 가. Chúng ta/ *Chúng tôi hãy đăng ký đi làm tình nguyện đi.

우리 봉사활동을 신청하자.

나. Cuối tuần này mình đi đâu chơi đi.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자기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에 (57)처럼 비문이 된다.

(58 가, 나)는 위의 주어인 'Chúng ta(우리), mình(우리)'가 1 인칭 복수형이며 화자와 청자의 행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는 뜻이다. (58 가)는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행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58 나)는 '주말에 어디 놀러 가는' 행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한국어에서 청유형 종결어미 '-자'로 표현되며 청 유문의 문장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베트남어의 경우 청유문에 해당하는 문장 유형 이 따로 분류되지 않고 명령문의 문장 유형으로 분류된다. (58 가)에서 'chúng ta'와 'chúng tôi'은 모두 1 인칭 복수에 속하지만 'chúng ta'는 가능하나 'chúng tôi'은 불가능한 이유는 'chúng ta'의 1 인칭 복수형은 청자까지 포함하지만 'chúng tôi'의 1 인칭 복수형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2 인칭 단수와 복수가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59) 가. Mày đi lấy cho má cốc nước đi.

너 물 한잔 갖다 줘.

나. Chúng mày lo mà ngủ sớm đi. 너희들 일찍 자거라.

위의 (59)는 2 인칭 대명사인 'Mày, Chúng mày'가 주어로 쓰인 예들이다. 주어가 2 인칭 단수이든 복수이든 명령문에 다 쓰일 수 있는 특징에 위와 같은 예문은 아무 이상이 없다.

다음으로 호격어를 씌으로써 2 인칭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베트남어에서 대화할 때 호격어를 추가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표현하거나 존대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60) 가. Minh ơi, mai mày qua nhà tao chơi nhé.

밍아, 너 내일 내 집에 와.

나. Ông ơi, ông ngồi đây đi ạ.

할아버지, 여기서 앉으시지요.

다. Mọi người ơi, đi chậm chậm thôi ạ.

여러분, 천천히 가세요.

그 외에 2 인칭을 지칭하는 명사나 명사구가 주어로 쓰이기도 한다.

(61) 가. Mời giám đốc nói đôi lời phát biểu ạ.

사장님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나. Quý khách nào chưa nhận được vé giờ tay lên đi ạ.

티켓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62 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장님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 호칭어로 여기는데 베트남 어에서 임시 대명사이고 2 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보통 상대방이 상위자일 경우 2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 인칭을 가리키는 임시 대명사로 사용한다. (62 나)의 명사구인 '티켓 못 받으신 분'은 '티켓 받은 분'들과 구별하기 위해 한정어를 사용함으로써 목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티켓 못 받은 분'은 발화 현장에 있어 2 인칭일 수밖에 없다.

보통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가 서술형에 쓰일 때 3 인칭으로 간주되지만 명령문에서 쓰일 때는 2 인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63) 가. Không một ai được lên tiếng.

아무도 말하지 마.

나. Ai nói gì đi chứ.

누가 뭐라고 좀 해봐라.

셋째는 3 인칭 단수와 복수가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64) 가. *Cô ấy cho mượn xe đạp một lát nhé.

*그녀 자전거 잠깐 빌려줘.

나. *Họ đừng khóc nữa.

*그는 울지 마.

(64)에서 보듯이 'Cô ấy, Họ'와 같은 3 인칭 대명사가 명령문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서술어 대조

명령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명령문의 핵심 성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명령문의 서술어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행위 대상자를 가리키는 주어보다는 생략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발화 상황에 따라서는 명령문에서 서술어가 생략되어도 오히려 생략되기 전보다 명령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은 한국어나 베트남어에서 모두 확인된다.

(65) 가. 그만 해라!

Thôi đừng làm nữa!

나. 그만!

Thôi!

(66) 가. 다시 읽어봐!

Đọc lại lần nữa đi!

나. 다시!

Lại!

(67) 가. 난 시장에 간다.

Tôi đi chợ đây.

나. 잠깐!

Khoan!

(65~67)를 살펴보면 서술어가 생략되고 부사만으로도 명령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5 가, 66 가, 67 가)보다 (65 나, 66 나, 67 나)의 서술어가 생략된 발화가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명령의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보았듯이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에서는 서술어가 생략되어도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략이 물론 모두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명령문 서술어가 실현될 때 어떤 제약을 받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2.3.2.1. 서술어의 시제와 상

1) 한국어

명령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시간과 관계되는 선어말어미와 같이 사용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았-/-었-/-였-',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겠-'은 명령문에 쓰일 수 없다.

명령문은 의미적으로 '미래성'을 가진다(이지수 2016:105, 서정수 1996:415, 박금자 1987:75). 명령은 발화 시점 이후의 행동에 대한 요구이므로 과거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말하는 순간 뒤의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Chung-hye Han(2011:1790)에서도 명령문은

'과거지향성' 시간 부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근거로 명령문이 '미래지향성'을 가진다고 하였다(이지수 2016:105 재인용).

(68) 책 꼭 *가져왔어라. / 가져와라. / *가져오겠어라.

(69) 가. 지금/내일 책 꼭 가져와라.

나. *아까/어제 책 꼭 가져와라.

(70) 가. *내일 책 꼭 가져오겠어라.

나. *나중에 책 꼭 가져오겠어라.

위의 (68)에서 보듯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가져왔어라'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가져오겠어라'이 쓰인 문장은 명령문으로 성립할 수 없다.

(69)처럼 명령문에서 '아까, 어제'와 같은 과거 지향성 부사가 쓰이면 비문이 된다. 반면에 '내일'과 같은 미래 지향성 부사가 쓰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지금' 부사가 미래 지향성을 가지지 않아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이긴 하지만 요구하는 행위의 수행이 발화시 이후, 즉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문에서 쓰이면 미래 지시 의미만 가진다. 그리하여 '아까, 어제, 아직, 여전히, 여태, 이미, 벌써, 방금' 등과 같은 과거 지향성 부사가 명령문에 쓰일 수 없고 현재 또는 미래 지향성 부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오늘, 내일, 미리, 이따가, 나중에' 등이 명령문에 쓰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70)는 '내일'이나 '나중'의 시간을 지정해서 행동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겠-'이 쓰이면 비문이 되는 것이다.

이상 논의를 통해 명령문은 '미래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비-미래 시점에 대한 명령으로 보이는 예문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71) 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발, 내 생각하고 있어라.

나. (엄마가 아직도 집에 오지 않는 아들에게) 제발, 집에 가 있어라.

다. (상대방에게 실수로 메시지를 보낸 후) 아직 그거 읽지 말았어라.

(이지수 2016:107)

(71 가)에서는 진행상 의미를 나타내는 '-고 있-'가 쓰이는데 화자가 '상대방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71 나)에서는 결과상 의미를 나타내는 '-어 있-'가 쓰이는데 화자가 '아들이 집에 가 있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모든 상황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현재 시점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71 다)는 화자가 상대방이 그것을 보지 않았기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때의 요구되는 행위는 과거 시제 표시 '-었-'이 결합해 있는데, 이는 화자가 도착하는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과거를 표현한 것으로 과거 시제 표시 '-었-'을 사용했다. 그런데 세 경우 모두 청자가 발화 현장에 있지 않아서 바람, 기원으로 해석된다. 명령문은 상적 기능과 어느 정도 관련을 보일 수 있다. 명령문은 '미래성'을 갖기 때문에 완결상을 나타내는 '-었-'과 결합하는

제약이 있다. 다음으로 진행상 의미를 가진 '-고 있-'과 결과상 의미를 가진 '-어 있-'의 경우를 검토하고자 한다.

(72) 가. 밥 먹고 있어.
나. 여기서 앉아 있어.

(72 가)는 진행상 의미를 가진 '-고 있-'이 결합한 것이고 (72 나)는 결과상 의미를 가진 '-어 있-'이 결합한 것이다. 밥을 먹는 행위와 앉아 있는 행위가 발화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인 행위이므로 화자가 '행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명령문이 '미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행 위나 진행 중인 행위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밥을 먹는' 행위 와 '앉아 있는' 행위를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 있-'과 '-어 있-'이 명 령문에 쓰일 때 '행위 지속상'을 나타낼 수 있다.

게다가 명령문에서 진행상 표지가 쓰이면 명령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
(73) 가. 엄마 잠깐 통화하니까 여기서 기다려.
나. 엄마 잠깐 통화하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73)에서 보듯이 (73 나)의 '기다리고 있어'라는 말이 (73 가)의 '기다려'라는 말보다 명령의 강제가 약하게 느껴지고, 좀 더 부드러운 명령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보인다.

2) 베트남어

베트남어 명령문은 '미래성'을 가지며 서술어 형식이 가장 무표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명령문의 서술어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부사 'đã'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 는 시제 부사 'sẽ, sắp(근접 미래)'와 결합하지 못한다.

또한, '과거 지향성'을 가지는 부사 'hôm qua(어제), vừa rồi(아까), từng(한 적이 있다), khi (lúc) này(아까), (vừa) mới(방금)' 등이 명령문에서 쓰일 수 없으며 '현재나 미래 지향성'을 가지는 부사 'bây giờ(지금), chút nữa(이따가), hôm nay(오늘), ngày mai(내일), sau này(나중에)' 등 이 명령문에서 쓰일 수 있다.

(74) 가. Hôm nay/ Ngày mai uống thuốc đúng giờ nhé.
오늘/ 내일 약을 제시간에 먹어라.
나. *Hôm qua uống thuốc đúng giờ nhé.
*어제 약을 제시간에 먹어라.
다. *Đã uống thuốc đúng giờ nhé./Uống thuốc đúng giờ nhé.
/ *Sẽ (Sắp) uống thuốc đúng giờ nhé.
약을 제시간에 *먹었어라./먹어라./ *먹겠어라.

명령문은 대체로 현재 시간 뒤에 일어나는 행동을 요구하게 되고, 과거 행동을 하라 고 하지 못하므로 (71 나)의 'hôm qua(어제)'라는 과거 지향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명령 문에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현재나 미래 지향성을 가진 'hôm nay(오늘) 와 ngày mai(내일)'가 명령문에 잘 어울려 쓰일 수 있다. 또한 (71 다)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과거 시제 부사 đã 와 미래 시제 부사 sẽ, 근접 미래 시제 부사 sắp 를 쓰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시제 부사가 서술어 앞에 위치하여 시제를 나타내는데 명령문의 서 술어가 무표적인 특징과 배치되므로 명령문에 쓰이지 않는다. 한편, 베트남어에서 'đã'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위치할 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서 명령문에 쓰일 수 없지만 동사 뒤 또는 문장 끝에 위치할 때 시간을 나 타내는 것과 달리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가 되어 명령문에 쓰일 수 있다.

다음 (75) 들을 확인할 수 있다.

(75) 가. Ăn cơm đã (rồi đi học.)

밥 먼저 먹고 (학교에 가라.)

나. Vào đây uống nước đã.

들어가서 물 먼저 미시고 (가라.)

다. Khoan, nghe tôi nói hết câu đã.

잠깐, 내 말 먼저 들어보고 (말해라.)

'đã'는 명령문에 쓰이는 양태 조사 중의 하나며 명령문에 쓰일 때 화자는 청자가 하려고 하는 행위나 진행 중인 행위를 중지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행위를 먼저 수행하라는 의미가 있다(Bùi Thị Kim Tuyền 2005:62). 다시 말하자면 'đã'는 '먼저'의 뜻과 비슷하여 'đã' 앞에 나오는 행위를 먼저 하고 'đã' 뒤에 나오는 행위를 다음에 한다는 뜻이 다. (75 가)는 보듯이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먼저 먹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75 나)는 떠 나려고 하는 청자에게 화자가 물을 좀 마시고 가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75 다)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화자가 '내 말 다 들어보'라고 요구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đã'는 과거 시제와 관계없이 명령문에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어 명령문의 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Dinh Mai Thu Thuy(2015)에 따르면 베트남어에서 완료상과 진행상, 전망상이 있 다. 이 논의에 따르면 베트남어의 상을 나타내는 표지가 시제 표지와 같을 것으로 보인 다. 과거 시제 'đã, vừa, từng'는 때로 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명령문의 '미래성'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용법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 시제 'sẽ, sắp'는 전망상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위의 논의한 바와 같이 미래 시제 'sẽ, sắp'은 명령문에 쓰이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 이어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đang'를 살펴보고자 한다. 응우옌티투이(2018)의 한 논의에서 한국어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과 결과상을 나타내는 '-어 있-'은 베트남어 'đang'과 대응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 (76) 가. Tôi đang đọc sách.
 나는 책을 읽고 있다.
 나. Mà đang đọc sách hả?
 너 책을 읽고 있니?
 다. *Hãy đang đọc sách đi.
 책을 읽고 있어라.
- (77) 가. Em bé đang ngồi.
 아기가 앉아 있다.
 나. Mà đang ngồi hả?
 앉아 있니?
 다. *Hãy đang ngồi đi.
 앉아 있어라.

위의 (76,77)을 보면 진행상을 가진 '-고 있-'과 결과상을 가진 '-어 있-'은 'đang' 과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만 대응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76 다, 77 다)의 명령문에서는 대응할 수 없으며 비문이 된다. 그래서 '-고 있-'와 '-어 있-'은 명령의 구조에 쓰이는 경우 베트남어로 'đang'과 대응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문의 '행위 지속상'을 나타내는 '-고 있-'과 '-어 있-'은 베트남어로 대응하는 표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립어로서 베트남어가 가지는 '의미의 가변성'과 '품사 변환 현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한 품사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Nguyễn Anh Quế(1988:94-95)에서는 부사 'Cứ(계속)'²⁰⁾는 서술형의 서술어 앞에 위치할 때 어떤 행위나 상태를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함을 나타낼 때 쓰인 부사라고 하였다 ²¹⁾. 그 외에도 'Cứ'는 또한 명령의 기능을 지닐 수 있고 화자가 상대방에게 행위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78) 가. Bắp 먹고 있어.
 Cứ ăn cơm đi.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Cứ đợi ở đây nhé.
 다. 너 앉아 있어.
 Mà cứ ngồi đi.

위의 (78)에서 보듯이 'Cứ'와 결합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밥 먹고 있는 행위', '기다리고 있는 행위'와 '앉아 있는 행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뜻으로 나타나 보이며 명령문에 쓰일 수 있다. 가령 청자가 행위를 아직도 시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때 'Cứ'의 의미가 시작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3.2.2. 서술어의 제약

1) 한국어

명령문 서술어의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동사만이 올 수 있다. 한국어 학교 문법서에서는 명령문의 서술어 자리에 일반적으로 동사만 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명령문 서술어의 제약에 대한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명령문 서술어의 제약에 대한 논의

연구자	명령문 서술어의 제약에 대한 논의
고영근(1976)	형태소 '-어라'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어라'는 동사와만 통합됨이 원칙인데 형용사 가운데서도 접미사 '-하다'가 붙는 것은 '-어라'와 결합할 수 있다
채영희(1983)	명령문에 쓰이는 서술어는 동작동사나 과정동사라야 하며, '상태동사'는 주체의 의지가 개입되어 스스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 다면 명령에 쓰일 수 있다. 존재 동사 '있다'는 명령문의 서술어가 가능하나 '없다'는 '-어지다'를 붙여서 움직임을 나타내며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
박금자(1987)	명령문의 서술어는 동작동사만 올 수 있다. '부지런해라', '조용해라', '성실해라'라는 예문은 예외 경우로 해석하며 '부지런, 조용, 성 실'과 같은 어휘들은 분리성이 강한 불규칙적 어근으로 동사로 전성되기 쉬운 특이적인 어휘이다.
서정수(1996)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서술어는 '동사성'을 띠는 동사와 일부 존재 사에 한정되고 형용사가 명령문의 서술어가 되려면 '동사성'을 보이 게 해주는 '-어지다'와 결합해야 한다.
고성환(2003, 2012)	동사더라도 행위 주체의 의도성이나 자발성, 행위의 제어 가능성이 없으면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고 형용사라도 의도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보아 동사는 명령문에 쓰일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견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고성환(2003, 2012)의 견해에서는 동사의 의미까지 분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용사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어하다'와 '-어지다'를 결 합하여 그 형용사를 동사화하여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용사의 의미를 접근하여 해석하는 채영희(1983)와 고성환(2003, 2012)의 논의가 있 다. 이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보여 줄 수 있는 견해가 고성환(2003, 2012)의 견 해이다. 여기에서는 고성환(2003, 2012)에 따라서 한국어 명령문 서술어의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지 동사에 대해 살펴보자.

'알다, 모르다, 깨닫다, 느끼다, 이해하다, 오해하다' 등과 같은 인지동사 중에서 명령 수행자의 의도나 의지가 개입 여지에 따라 위와 같은 인지동사가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쓰일 수 없는 것도 있다.

- (79) 가. 이런 것을 좀 알아라.
나.*이런 것을 좀 몰라라.
다. 네 스스로가 느껴라.
라.*네 스스로가 느끼지 마라.

(고성환 2003:92-93)

명령 수행자의 의도나 의지에 따라 어떤 식으로 취하게 되면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79 나)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는 상태가 모르는 상태로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알다'는 명령문에서 쓰일 수 있는 반면, '모르다'는 쓰이면 안 된다. '느끼다'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사 중에서 피동사는 논리상으로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령문은 청자가 명제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전제하는데, 피동문의 경우는 청자가 자발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하여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임홍빈 1986:542). 그러나 고성환(2003:91)의 관점에서 아무리 피동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라 하더라도 청자의 능동성 혹은 자발성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면 명령문으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0) 가. *발을 밟혀라.
나. 버스에 사람이 많으니 그냥 발을 밟혀라.

(유현경 외 2019:498)

- (81) 가. 내 등에 업혀라.

(고성환 2003:92)

(82 가)는 '발을 밟혀라'와 같이 피동사가 명령문의 서술어로 쓰인 경우로 명령보다는 기원이나 바람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80 나)에서와 같이 '버스에 사람이 많으니 그냥 발을 밟혀라'라고 했을 때 청자의 자발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령문으로 보일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상황이나 맥락을 보충해야 한다. 한편, 상황이나 맥락이 없어도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피동사도 있는데, (81)에서는 업히는 행위가 청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동사 '업히다'가 명령문에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 형용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형용사가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도 명령 수행자의 자발성과 제어 가능성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83) 가. *무슨 일에든지 궁금해라.
 나. *이 방면에 유명해라.
 다. *이런 일에는 관계없어라.

(고성환 2003:96)

- (84) 가.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해라. (고성환 2003:94)
 나. 손님한테 친절해라. (고성환 2012:102)
 다. 웃어른한테는 공손해라. (고성환 2012:102)

위의 (83, 84)에서 보듯이 '궁금하다, 유명하다, 관계없다'라는 서술어는 명령문에 쓰일 수 없지만 '꾸준하다, 친절하다, 공손하다'라는 서술어는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는 (83)에는 동작주의지나 의도가 전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고 (84)에는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상태 변화' 혹은 '마음가짐의 변화(김병건 2014:118)'를 시키려는 의지나 자발성이 상정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에 따라 '꾸준할 수 있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 '친절할 수 있기 위해 손님한테 웃으며 인사하는 것', '공손할 수 있기 위해 웃어른한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통해 나타난 상태의 변화가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보아 동사가 명령문의 서술어일 경우, 어떤 행동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반면에 형용사가 명령문의 서술어일 경우, 상태변화를 시키려고 어떤 행동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명령문에 가능한 형용사들이 다음과 같다.

(85) 감사하다, 검소하다, 건전하다, 강경하다, 겸손하다, 굳세다, 관대하다, 과묵하다, 과감하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공손하다, 극진하다, 근엄하다, 끈질기다, 끈덕지다, 깨끗하다, 꼼꼼하다, 깨끗하다, 깔끔하다, 냉담하다, 냉정하다, 냉혹하다, 너그럽다, 느긋하다, 능통하다, 다정하다, 덤덤하다, 대범하다, 대담하다, 당차다, 당당하다, 단정하다, 땃땃하다, 똑똑하다, 만족하다, 무덤덤하다, 모질다, 명랑하다, 매정하다, 매물차다, 민첩하다, 분명하다, 상냥하다, 소박하다, 세심하다, 세련되다, 섬세하다, 순수하다, 슬기롭다, 씩씩하다, 알뜰하다, 얌전하다, 엄정하다, 엄격하다, 억척스럽다, 어질다, 엄하다, 영리하다, 용감하다, 완벽하다, 온화하다, 유연하다, 자상하다, 인자하다, 정숙하다, 정직하다, 조용하다, 진지하다, 진실하다, 지혜롭다, 차분하다, 착실하다, 착하다, 철저하다, 친절하다, 치밀하다, 충실하다, 태연하다, 투철하다, 현명하다, 화목하다, 활달하다.

(고성환 2012:101)

위에서 제시한 형용사는 총 83 개이고 대부분이 사람의 성질을 가리키는 형용사임을 볼 수 있다. 이승희(2006:559-560)에서 위의 제시한 형용사들 외에 '냉철하다, 솔직하다, 신중하다, 침착하다, 건강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도 명령문의 서술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혜숙(2020:22)에서 그들 중에 '냉철하다, 솔직하다, 신중하다, 침착하다'는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 또는 제어가능성이 개입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라고 하였다. 나머지 '건강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는 동적주의 의지로 건강하기 위해, 편안하기 위해 또는 행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이행하거나 상태 변화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원이나 인사' 발화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 언어의 명령문을 대상으로 대조하는 연구이므로 실제 사용 현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형용사가 명령문에 쓰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하였지만 엄밀하게는 인정하지 않는 규범적 관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형용사는 명령문에 나타나는 빈도가 높지 않다. 이지수(2016:118)는 '명령형 어미와 결합 가능한 형용사'를 대상으로 명령형 어미와 결합 빈도를 말뭉치에서 확인함으로써 명령문에서의 형용사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총 95개 형용사 중 명령문에 1회 이상 나타나는 것은 제시된 19개뿐이며, 나머지 75개 형용사는 명령문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베트남어

명령문의 서술어로 동작동사가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것은 보편적이다. 베트남어에서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명령문의 서술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동사의 경우보다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동사로 이루어진 명령문이 형용사로 이루어진 명령문보다 더 많이 쓰인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도록 요구할 경우 명령문의 서술어로는 형용사가 쓰이게 된다.

(86) 가. Hãy kiên trì theo đuổi ước mơ của mình.

명령 부사/끈질기다/펼치다/꿈/네

→네 꿈을 펼치는 것을 끈질겨라.

나. Đừng (có)24) buồn.

부정 명령 부사/슬프다.

→슬퍼하지 마.

다. Con đừng (có) lười biếng, phải chăm chỉ học.

너/부정 명령 부사/게으르다, 아야 하다/열심히/공부하다.

→너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라. Chớ (có) vô tâm với người gặp khó khăn.

부정 명령 부사/무심하다/에게/사람/처하다/어려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무심하게 대하지 마세요.

바. Gọn gàng chút đi.

깔끔하다/좀/어기 조사.

→좀 깔끔히 해라.

마. Nhẹ nhàng thôi. Em đang ngủ.

부드럽다/어기 조사/동생/고 있다/자다.

→부드럽게 해라. 동생 자고 있어.

위의 (86)에서 보듯이 *kiên trì*(끈질기다), *buồn*(슬프다), *lười biếng*(게으르다), *vô tâm*(무심하다), *gọn gàng*(깔끔하다), *nhẹ nhàng*(부드럽다)라는 형용사는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86 가,나,다,라)에서는 명령 부사 'Hãy, Đừng, Chớ'와 형용사가 결합된 명령문이고 (86 바,마)에서는 형용사와 어기 조사 'đi, thôi'가 결합된 명령문이다.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령문에 쓰일 때 명령이나 요청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 베트남어 명령문에서 서술어의 자리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사나 형용사가 명령 부사 'Hãy'와 결합될 때 통사적 제약을 받는다. Đào Thanh Lan(2000:19)는 베트남어 명령문에 대해 살펴볼 때 '명령 부사 'Hãy'는 명령문의 서술어와 결합된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아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보어나 부사어 또는 어기 조사와 같이 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87) 가. *Hãy ăn → 먹어.
나. *Hãy đi → 가라.

위와 같은 (87)은 베트남어에서 불완전한 문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명령 부사 'Hãy'는 명령문의 서술어와 결합될 때 다음과 같은 양상을 취해야 한다.

- (88) 가. 명령 부사 'Hãy' + 동사/형용사 + 보어/부사어 (+ 어기 조사)

예) Hãy đi học đúng giờ.

명령 부사/가다/학교/제시간에

→ 학교에 제시간에 가세요.

예) Hãy ăn nhanh vào.

명령 부사/먹다/빨리/어기 조사.

→ 빨리 먹어라. 나. 명령 부사 'Hãy' + 동사/형용사 + 어기 조사

예) Hãy đi đi.

명령 부사/가다/어기 조사

→ 가라.

예) Hãy vui lên.

명령 부사/기쁘다/어기 조사

→ 기뻐해라

또 다른 통사적 제약은 명령 표지가 피동 형식과 결합하는 경우이다. 피동 형식이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살펴보면 위의 분석을 보다시피 한국어의 경우에는 '내 등에 업혀라'라는 명령문이 역시 존재한다고 보았다. 영어의 경우에도 사역동사인 'let, get, have'를 빌려서 'Get your hands washed'라는 피동 형식을 갖는 명령문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어의 경우에는 아래 (85)과 같이 따져보면 (85 나)처럼 피동 형식이 명령문에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89) 가. 내 등에 업혀라.

나. *Hãy được công trên lưng mình nhé.

명령 부사/업히다/에/등/나/어기 조사.

베트남어는 한국어처럼 피동사 체계가 따로 없고 피동 부사 'được, bị'를 동사 앞에 두어 피동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통사적 측면에서 볼 때 명령문 서술어가 아무 시제 나 양태 표지와 결합하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피동 부사가 명령문의 서술어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피동 형식이 명령문에 쓰이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명령 표지와 명령문의 서술어의 통사적 제약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의미 적 제약을 살펴보려고 한다.

Chu Thị Thủy An(2002:9)의 견해에 따르면 명령문의 첫 번째 조건은 서술어가 [+ 사람]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사나 형용사가 사람과 관련이 없으면 명령 문에 쓰일 수 없다. 예를 들면 'trôi(흐르다), lạnh(춥다), nóng(덥다), ngọt(달다), đắng(쓰다), yên tĩnh(고요하다), trơn(미끄럽다), thô kệch(거칠다)' 등과 같은 사물을 가리키는 동사나 묘사하는 형용사가 명령문에 쓰이지 않는다. 명령문의 서술어의 두 번째 조건은 그 서술어에 나타나는 행위나 상태가 명령 수행 자가 통제할 가능성 혹은 [+ 제어]의 자질과 관련이 있다면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즉 명령 발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청자가 그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어기면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형용사 명령문의 경우도 역시 그러 하다.

다음은 (90,91)을 통하여 각 경우를 살펴보겠다.

(90) 가. Đóng cửa lại đi.

문 닫아.

나. Đợi mười phút nhé.

10 분 기다려.

(87) 가. *Đừng mập nhé. ?

뚱뚱하지 마라.

나. *Hãy đẹp lên đi. ?

예뻐져라.

다.*Hãy thông minh lên đi.?

똑똑해져라.

라. *Lanh lợi lên đi. ?

영리해져라.

'문을 닫다', '기다리다'라는 사람의 물리적 행동이 분명히 [+제어]의 자질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이므로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 '뚱뚱하다', '예쁘다'라는 상태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다. '똑똑하다, 영리하다'는 사고 양식에 관한 표현으로서, 명령의 형태를 취할 수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앞 으로 영리해져라'나 '똑똑해져라'라고 명령할 수 없다. 그러한 명령을 한다고 해도 영리 해질 수 없고 똑똑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논의를 보충하여 Chu Thị Thủy An(2002:9)은 명령 수행자가 제어할 수 없는 행동, 상태, 성질이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지만 문장에서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보어가 추가되면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어는 서술어의 표현되는 행동이나 상태, 과정을 구체화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하기 위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2) 가. *Hãy sống.

살아라.

나. Hãy sống cho hôm nay, ngày mai còn xa lắm.

오늘을 위해 살자, 내일은 아직 멀어.

(93) 가. *Đừng thở.

숨 쉬지 마.

나. Đừng thở dài nữa.

한숨 쉬지 마.

(Chu Thị Thủy An 2002:9)

(92 가, 93 가)를 보면 '살다', '숨 쉬다'라는 행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 어나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 살라고 명령을 할 수 없고 죽은 사람에게도 살 라고 분명히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러한 통제 가능성이 없는 동사는 명령문에서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어가 추가된 '오늘을 위해 살자, 내일은 아직 멀어'라는 문장이 될 때 격려의 의미가 개입되며 '살다' 동사가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숨 쉬지 말라'는 요청은 듣기가 좀 어색하지만 보어가 추가된 '한숨 쉬지 마'라는 요청을 이룰 수 있으므로 명령문이 성립할 수 있다. 다음은 인지동사가 명령문에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동사는 [+동적](**)의 의미를 가진 동사도 있고 [-동적]의 의미를 가진 동사도 있 다. 명령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지동사는 [+동적]의 의미를 가진 동사만 가능하다. 왜 냐하면 어떤 인지동사가 [+동적]의 의미를 가질 때 [제어]의 자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동적]의 의미를 가지면 [제어]의 자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예문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94) Hãy biết kính trọng người lớn tuổi.

명령부사/알다/공경하다/어른

어른에게 공경할 줄 알아라.

(**) 어휘상 측면으로 보아 동사는 어떤 과정이나 변화를 나타내므로 [+동적]이고 형용사는 과정이 나 변화가 없는 균일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정적] 혹은 [-동적]으로 특성을 갖는다.

(95) Xin hãy hiểu cho tôi.

좀/명령부사/이해하다/주다/나
좀 이해해줘.

'biết(알다), hiểu(이해하다)'는 인지동사에 속하며 [+동적]의 의미를 취하기도 하고 [-동적]의 의미를 취하기도 한다. 위의 (94,95)에서 'biết(알다), hiểu(이해하다)'는 아는 행위와 이해하는 행위로 혹은 [+동적]의 의미를 취하여 명령문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94,95)에서처럼 인지 행위의 의미가 아닌 인지 상태의 의미 혹은 [-동적]의 의미를 가진 인지동사가 명령문에 쓰일 수 없다.

(96) 가. Tôi biết bơi.

저는 수영할 줄 알아요.

나. *Hãy biết bơi đi.

*수영할 줄 알아라.

(97) 가. Tôi hiểu bài toán này.

난 이 수학 문제를 이해한다.

나. *Hãy hiểu bài toán này đi.

*이 수학 문제를 이해해라.

Nguyễn Thị Thu Hà(2006:55)에 따르면 'biết(알다), hiểu(이해하다)'와 같은 인지동사가 사람의 인식 상태만 나타내며 과정이나 변화가 없으므로 [-동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2.3.3. 한국어와 베트남어 부정 명령문 대조

2.3.3.1. 한국어 부정 명령문

한국어 명령문은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으로 나뉘는데 긍정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인 반면 부정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부정 명령문은 긍정 명령문과 어미 형식은 동일하고 부정 표지만 상이하다. 한국어 부정 명령문은 '-지 말다' 부정 형식만 사용되고 장형 부정 형식인 '-지 않다', '-지 아니하다'와 '-지 못하다' 및 단형 부정 형식인 '안'과 '못'은 사용되지 않는다. 아래 (94)에서 확인해 보자.

(98) 가. 영화야, 뛰지 마라.

나. *영화야, 안 뛰어라./ 뛰지 않아라.

다. *영화야, 못 뛰어라./뛰지 못해라.

(98)에서 명령문에서 '-지 말다'에 의한 부정만 가능하고, '안'이나 '못', '-지 않다', '-지 못다'에 의한 부정이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안'과 '못'에 의한 부정이 명령문에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안'과 '못'은 '의도, 능력'의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오히려 명령문의 특징과 배치되기 때문에 명령문에 쓰이지 못한다.(채영희 1993:184)

한편, 고성환(2003:105-108)에서 '-지 말다'와 '-지 않다'는 서로 대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때 평서문의 주절에 바람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내포절에서 '지 말다'가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영준(1994:35)에서도 '당위'의 의미를 갖는 '-아/어야 하다'를 결합하는 문장에서도 '-지 않다'와 '-지 말다'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99) 가. 철수가 오지 않기가/*말기가 쉽다.

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도 실망하지 않기가/*말기가 어렵다.

(고영근 1989:57, 고성환 2003:106 재인용)

(100) 가. 나는 네가 미국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나. 나는 네가 미국에 가지 말기를 바란다.

(101) 가. 배고플 때 커피를 먹지 않아야 한다.

나. 배고플 때 커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

(99)은 (100)과 달리 '바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99)과 같은 경우 '-지 않다'를 쓸 수 있지만 '-지 말다'를 쓸 수 없다. (101)에서도 확인했듯, '-지 않다'와 '-지 말다'는 '-아/어야 하다'의 구성과 잘 결합할 수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99~101)를 통해 부정 형식인 '-지 말다'는 명령문뿐만 아니라 평서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 형식인 '-지 말다'를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령문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부정 명령문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하지'가 생략되어 이루어진 문장이 흔히 보인다.

- (102) 가. 그런 일에 걱정하지 마.
가'. 그런 일에 걱정 마
나. 꿈쩍하지 마.
나'. 꿈쩍 마.
다. 설날에 밥하지 마세요.
다'. *설날에 밥 마세요.

(102 가', 나')를 보면 '하지'가 생략되어도 정상적인 문장인데 (102 다')은 '하지'가 생략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걱정, 꿈쩍'이라는 명사는 명사 자체가 동작성을 갖고 있는 명사로서 '공부, 말, 일, 청소' 등과 같은 동작성 명사로 보아 '하다'가 붙 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밥하다, 떡하다, 나무하다' 등과 같은 경우 '밥, 머리, 나무'라 는 명사가 자체가 동작성을 가지 못하는 명사로서 '하다'와 결합되어야 동사로 변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102 다')와 같은 경우 '하지'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는 것이다.

부정 명령문의 서술어는 긍정 명령문의 서술어와 차이가 있다. 앞에서 행위 주체의 의도성이나 자발성, 행위의 제어 가능성이 없으면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그런데 부정 명령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상당 히 완화되어 나타난다. 고성환(2003:97)에서는 '행위 주체의 의지나 의도의 개입 가능성이나 제어가능성'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데 긍정 명령문에서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긍 정의 내용에서는 행위 주체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영준(1994:193)에서는 [±가치] 자질의 기준을 도입해서 [+가치]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는 긍정 명령문과 결합하고 [-가치]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는 부정 명령문과 결합한다고 주장하였다.

- (103) 가. *걱정해라.
나. 걱정하지 마라.
(104) 가. 안심해라.
나. *안심하지 마라.

(103)에서 '걱정하다'라는 [-가치]의 의미를 가진 동사는 부정 명령문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반면 (104)에서 '안심하다'라는 [+가치]의 의미를 가진 동사는 부정 명령 문과 결합할 수 없고 긍정 명령문과 잘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가치]의 자질을 기준으로 하면 형용사의 경우에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는 [+가치]의 의미를 가지며 긍정 명령문에 쓰일 수 있고 부정적인 태도는 [-가치]의 의미를 가지며 부정 명령문에 쓰일 수 있다.

- (105) 가. *실망해라.
나. 실망하지 마라.
(106) 가. 공손해라.
나. *공손하지 마라.

(105)에서 보다시피 '실망하다'는 [-가치]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긍정 명령문이 불 가능하나 부정 명령문에는 가능하다고 보인다. 반면 (102)의 '공손하다'는 [+가치]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라서 긍정 명령문에만 가능하다.

2.3.3.2. 베트남어

부정 명령문 베트남어 부정 명령문을 성립할 수 있는 방식은 명령 부사 'đừng, chớ'나 수행 동사 'cấm(금지하다)'를 서술어 앞에 두는 것이다. 그 외에 'không được'는 부정사인 'không(안)'와 'được(되다)'가 결합한 것으로 한국어로 '안되다'를 의미하며 부정 명령문에도 쓰일 수 있다. 그중에서 'đừng, chớ'는 부정 명령문의 대표 표지이므로 평서문에 쓰이지 못하고 'cấm(금지하다)'와 'không được'는 평서문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명령문의 대표 표지로 보기는 어렵다.

Chu Thị Thủy An(2002:12)에 따르면 'đừng'와 'chớ'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며 부정명령문에 쓰일 때 어떤 행동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거나 더 이상 실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đừng'는 주로 명령, 요구, 요청, 권유, 청구와 같은 화행에 서 쓰이며 문어체와 구어체에 다 나타날 수 있다. Chớ는 'đừng'보다 명령의 강제가 낮아 주로 권유의 의미로 쓰이고 구어체에 많이 쓰인다. 'Cấm'와 'không được'은 강제의 의미가 강하며 대부분 '금지'의 의미로 쓰인다.

- (107) 가. (Anh) đừng nghe lời nó.
(당신) 그의 말을 듣지 마세요.
나. (Anh) chớ nói năng lung tung.
(당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 (Anh) không được đỗ xe ở đây.
(저기) 여기서 주차하면 안 돼요.
라. Tôi cấm anh đánh con bé.
나는 네가 애를 때리는 것을 금지한다.

(107)에서 보듯이 통사적으로 볼 때, 'đừng', 'chớ', 'không được'으로 이룬 발화에는 주어가 청자이며 'cấm'으로 이룬 발화는 주어가 화자이다. 의미적으로 보면, 'đừng'과 'chớ'보다 'không được'과 'cấm'의 금지의 의미가 강하다. 가령 명령의 강제를 약화해 주는 양태 부사 'làm ơn(제발)'이 추가되면 'đừng', 'chớ'과 잘 어울려 쓰일 수 있지만 'không được', 'cấm'과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không được', 'cấm'는 'đừng', 'chớ'보다 금지의 의미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7 다,라)를 따져보면 한국어에서 금지의 표현을 나타내는 '안되다'와 수행 동사 '금지하다'를 사용함으로써 명령을 표현할 수 있지만

베트남어의 'không được'와 'cấm'처럼 명령문에서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Nguyễn Anh Quế(1988:131)는 베트남어 허사의 기능을 살펴볼 때 'đừng'와 'chớ'는 단독으로 사용되어도 명령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 부정 명령문의 표지 '-지 말다'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인다.

(108) 가. Tôi nêm thêm chút muối vào nồi súp nhé.

수프에 소금을 조금 더 넣을게.

나. Đừng!

하지 마!

(109) 가. Mình rút dây sạc pin điện thoại ra nhé?

핸드폰 충전기를 뽑아도 돼?

나. Chớ, chớ! Mới sạc đây mà.

하지만! 충전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위의 (108)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수프에 소금을 넣을 거라고 할 때 화자가 소금 넣지 말라고 하는 대신 'Đừng'라고 했다. (109)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Chớ'라고 해도 청자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면 한국 어의 부정 명령문 표지 '-지 말다'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여 동사류 '하다'의 도움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베트남어의 부정 명령문 표지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 명령문의 서술어의 특징은 3.2.2.에서 언급하였듯이 베트남어 명령문에서는 서술어가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명령 부사 'Đừng, 'chớ'와 잘 어울려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미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형용사와만 결합한다.

(110) Đừng buồn nữa.

슬프지 마.

(111) Chớ sợ.

무서워하지 마.

제 3 장. 연구 결과 및 고찰

3.1 베트남어와 한국어 명령문의 구조적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명령문은 베트남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문장 유형으로,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명령 또는 제안을 할 때 사용된다. 두 언어는 서로 다른 언어계에 속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주목할 만한 유사점이 많이 나타난다.

우선, 두 언어 모두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에서는 “Đi học ngay đi!”와 같이 직접적인 명령문을 사용하거나 “Tôi đề nghị em nên đi học sớm hơn”와 같이 간접적인 형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어에서도 “공부해라!”처럼 직접적 표현이 가능하고,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처럼 완곡하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다양성은 각 나라의 의사소통 문화가 단호하면서도 유연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두 언어 모두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에서는 “Hãy giữ im lặng!”(조용히 하세요!)는 긍정 명령문이고, “Đừng làm ồn!”(시끄럽게 하지 마세요!)는 부정 명령문이다.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하세요!”(긍정),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부정)처럼 명확히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명령의 강도는 어미, 억양, 맥락, 보조 어휘 등을 통해 조절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에서는 “làm ơn”, “vui lòng”, “nhé” 등의 표현을 통해 명령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한국어에서는 “-세요”, “-십시오”와 같은 존대형 종결어미, 혹은 “제발”, “좀” 등의 부사어를 통해 정중함을 표현할 수 있다.

차이점

항목	한국어	베트남어
주된 표현 방식	종결어미 사용 중심	명령 부사, 어기 조사, 수행 동사
공손성 등급	명확한 6 단계 존재 (하십시오체 ~ 해체)	명확한 등급은 없으나 표현은 유연함
긍정 명령	-(으)십시오, -아/어라, -게나 등	hãy + 동사, 동사 + đi/nhé/thôi 등
부정 명령	-지 마세요, -지 마라	đừng/chớ + 동사
보조 표현	제발, 좀, 부디 등 사용	nhé, đi, với, nha 등 감탄사 사용

3.1.1.1 주어에 대한 대조 분석

이상으로 양 언어의 명령문 주어의 출현 여부 및 주어의 인칭을 살펴보았다. 대조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주어가 명령 수행의 대상자일 경우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생략될 수 있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주어가 누구인지 고려해야 한다. 어순으로 문장의 의미를 표현하는 베트남어는 주어가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어가 실현되지 않을 때 낮춤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지칭하는 주어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예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높임법은 종결어미로 표현되어 있어 주어가 생략되어도 공손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어와 차이가 난다.

호격어가 실현된 경우 베트남어에는 호격어와 주어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112) 가. Sếp ơi, sếp ký tên vào đây đi ạ.

*사장님, 사장님 여기서 서명해 주십시오.

나. 사장님, 여기서 서명해 주시겠어요?

다. 사장님, 사장님은/사장님이 여기서 서명해 주십시오.

위의 (11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베트남어의 경우에는 호격어가 나타나더라도 동시에 주어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호격어와 주어가 같이 나타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는 한국어에서 해요체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 2 인칭 대명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요체 이상의 등급에서는 호격어가 실현될 때 (112 나)와 같이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주 제어나 주격 조사 '이/가'를 추가할 수 있으나 발화의 의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112 다)와 같이 '다른 사람이 아닌 사장님'이라는 강조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 명령문에는 청유문도 포함되며 주어가 1 인칭 복수일 경우 주어가 실현되어야 한다.

화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명령, 경고, 금지 등과 같은 강한 명령을 의미할 때 주어가 생략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양 언어 모두 비슷하다. 다만 명령 표시 없이 동사만으로 이루는 명령문이 베트남어의 경우 가능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반드시 종결어미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다.

명령문 주어의 인칭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2 인칭이나 1 인칭 복수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1 인칭 복수가 주어로 쓰인 문장은 한국어에서는 청유문에 해당하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명령문에 해당한다.

3.1.1.2. 서술어에 대한 대조 분석

이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서술어를 살펴보았다. 대조 분석의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령의 본질이 발화 시점 이후의 행동에 대한 요구이므로 과거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령문은 미래성을 취하는 것이다.

명령문의 서술어가 무표적인 특징이므로 과거 시제 표지나 미래 시제 표지를 나타내는 형태가 서술어와 결합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지향성을 가진 부사와 동반할 수 없고 현재나 미래 지향성을 가진 부사만 동반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동일하다.

상에 대해 나타난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어에서는 '-고 있-'과 '-어 있-'의 상표지가 비-명령문이나 명령문에 모두 쓰일 수 있는데 명령문에 쓰일 때 '행위 지속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베트남어에서는 비-명령문에서 사용되는 '진행상'의 'đang'는 명령문에 쓰일 수 없으나 '행위 지속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부사 'cứ'로 바뀌어 사용한다. 또한, 한국어 명령문에서 '-고 있-'과 '-어 있-'은 '행위 지속상'을 표현할 뿐 만 아니라 명령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도 있다. 베트남어 명령문에 해당하는 부사 'cứ'는 대조적으로 이런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명령문 서술어의 제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어 명령문에서 서술어가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명령 부사 'Hăy'와 결합할 때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보어나 부사어 또는 어기 조사와 같이 출현해야 한다. 왜냐하면 명령 부사 'Hăy'와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되는 문장이 충분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문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Hăy ăn(먹어라)'와 같은 문장은 베트남어에서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을 찾을 수 없으며 '먹어라'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피동사가 명령문의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베트남어에는 그렇지 않다. 이는 한국어와 달리 피동사 체계가 따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명령문 서술어의 의미적 제약에 있어 동사더라도 [+제어]의 자질을 가지지 못하면 명령문의 서술어로 쓰일 수 없다. 이는 위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동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어의 경우 형용사가 [+제어]의 자질을 개입할 수 있으면 명령문의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 한국어에서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는 명령문의 출현 빈도는 거의 없다고 실을 정도로 낮다. 이에 따라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는 명령문은 베트남어가 한국어에서보다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베트남어와 한국어 명령문의 기능적 유사점과 차이점

3.2.1. 유사점

베트남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명령문의 주어는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대상, 즉 어떤 행동을 요청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두 언어 모두 문맥이 충분히 명확할 경우 주어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언어 사용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통점으로, 특정한 상황과 화자-청자 관계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명령의 의도가 강하거나 긴급한 경우, 주어의 생략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에서는 “Bạn hãy đi đi(너 가라)” 대신 단순히 “Đi đi!(가!)”라고 말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당신이 가십시오”라는 표현은 문맥이 분명할 경우 “가십시오” 또는 “가!”와 같이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화자의 의도를 보다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인 화행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3.2.2. 차이점

비록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명령문이 모두 청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 문화와 문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기능적인 면에서는 여러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한국어는 명령문의 사회적 기능과 예절적 기능을 베트남어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계층적으로 표현한다. 한국어에서는 하십시오체(아주 공손한 말투), 해요체(정중한 말투), 해체(친근한 말투) 등으로 종결어미가 세분화되어 있어, 화자가 청자와의 사회적 관계 및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앉으세요’라는 표현도 “앉으십시오”(매우 공손), “앉으세요”(정중), “앉아”(친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어에서도 “mời”, “xin”, “vui lòng”, “nhé”, “ạ” 등과 같은 공손 표현이 존재하지만, 한국어만큼 체계화된 경어법은 없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호칭어나 상황적 맥락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위나 존칭을 표현하는 기능이 한국어보다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반대로 맥락이 부족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크다.

또한 베트남어 명령문은 명령, 권유, 제안 등의 의미가 한 문장에서 동시에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 표현의 경계가 모호한 편이다. 반면 한국어는 명령문(가라), 청유문(같이 가자) 등 언어행위에 따라 문법 형태가 명확히 구분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의 “Đi chơi đi!”는 명령이자 권유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지만, 한국어는 “가라!”(명령), “같이 가자!”(청유)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한편, 명령문에서 주어의 사용 방식도 두 언어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자연스럽게 생략되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공손하고 격식 있는 표현일수록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언어에서 상대의 지위나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3.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

명령문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 형식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있어 명령문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경어법의 구분이다. 한국어는 복잡한 경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명령문 형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으)십시오”를 사용하면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말처럼 들릴 수 있고, 반대로 어른에게 “-아/어라”를 사용하면 무례하고 무성의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베트남어에서 한국어로의 명령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학습자에게 큰 도전이 된다. 종종 학습자들은 베트남어 명령문을 한국어로 직역하면서, 문맥 속의 말투나 정중함의 뉘앙스를 고려하지 못해 어색하거나 실례가 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의 “Anh giúp em với!”는 부드럽고 예의 있는 요청이지만, 이를 한국어로 “형, 나 도와!”라고 번역하면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종결 어미의 잘못된 사용이다. 많은 학습자들이 존댓말 종결 어미 “-세요”와 반말 종결 어미 “-아/어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도록 하다”와 같은 간접 명령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오류는 명령문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단지 의사소통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명령문 사용 방식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학습자가 명령문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4. 해결 방안

명령문은 한국어 일상 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표현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명령문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특히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명령문 사용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는 한국어의 경어 체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는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베트남어와 달리 문장의 종결어미를 통해 정중함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오해나 무례한 인상을 피하려면 듣는 사람에 맞는 종결어미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상사, 낯선 사람에게는 “-(으)십시오”나 “-세요”와 같은 정중한 표현을 써야 하며, 반면에 친한 친구나 나이가 어린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어라”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고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만약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 나는 “-세요”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표현은 무난하면서도 정중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어에서 한국어로의 명령문 번역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명령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문장의 분위기나 문화적 뉘앙스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어색하거나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의 “Anh giúp em với!”는 부드럽고 예의 있는 요청이지만, 이를 “형, 나 도와!”라고 번역하면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럴 경우 “저 좀 도와주세요”처럼 표현하면 요청의 의미도 살리면서 동시에 정중함도 유지할 수 있다.

명령문을 잘 사용하려면 실제 대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들과 대화 연습을 하거나 회화 수업에 참여하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원어민들이 명령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문맥 속의 반복 학습은 다양한 명령문의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이다. 외국어 학습은 실수하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틀리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보고, 수정하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통해 명령문뿐 아니라 전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특징을 대조 분석하고 양 언어 명령문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제 2 장에서 먼저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모두 주어와 서술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어는 어말 어이며 교착어의 특성을 지닌 반면, 베트남어는 단어 간 결합이 느슨한 고립어로서 보다 유연한 문장 구조를 지닌다.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에 위치하며, 문장의 성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반면, 베트남어는 하나의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될 수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간결하다. 두 언어 모두 단문과 복문을 구분하며,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평서문 등 다양한 문장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 문장 유형의 표현 방식과 구조적 특징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양 언어의 문법 체계와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양 언어의 명령문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명령문의 정의 및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라는 의미 적 측면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비슷하다. 그러나 형태적으로는 한국어 명령문은 명령형 종결어미에 의해 성립되는 반면에, 베트남어 명령문은 명령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명령 부사, 어기 조사, 수행 동사와 조동사에 의해 성립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명령 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경우, 명령형 종결어미와 결합되는 형식이 있고 명령형 종결어미는 높임법의 등급에 따라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의 6 등급으로 들어 있다. 각 등급에 속하는 명령형 종결어미는 사용 대 상, 용법 및 의미의 특징이 다르다. 베트남어 명령문의 실현 양상은 첫째, 명령 부사로 이루어지며 서술어 앞에 넣는 것이고, 둘째, 어기 조사로 이루어지며 서술어 뒤에 넣는 것이다. 셋째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는 수행 동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넷째는 조동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중에서 어기 조사는 보통 명령의 효력을 가지게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문장의 어감을 부여하는 기능도 있다.

제 2 장에서도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주어, 서술어과 부정 형식에 대 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령문의 공손 표지가 포괄적으로 양 언어에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공손을 표현하기 위해 높임법이 주로 쓰이는데 베트남어에서 이에 대응하는 용법이 없 고 대신에 대명사, 어기 조사와 수행 동사 'mòi, xin, xin phép'를 사용한다.

우선, 주어에 대해서 주어의 출현 여부와 주어의 인칭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출현 여부는 일반적으로 통사적인 조건과 의미적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베트남어 명령 문에서는 화용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한국어 명령문에서 주어의 지시대상과 명 령 수행의 대상이 같으나, 호격어의 지시 대상과 명령

수행의 대상이 같으나, 그리고 추가적 의미를 더하느냐에 따라 주어의 출현 여부가 결정된다. 베트남어에서는 주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장의 공손성과 의미 양태가 달라진다. 주어가 실현되지 않을 때 낮춤말이 되기 때문에 발화 대상이 누구인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 명령문의 주어보다 생략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의 출현 여부는 명령의 강제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화의 양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 명령문에는 청유문도 포함되므로 주어가 1 인칭 복수일 경우 주어가 실현되어야 한다. 명령문 주어의 인칭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2 인칭이나 1 인칭 복수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1 인칭 복수가 주어로 쓰인 문장은 한국어에서는 청유문에 해당하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명령문에 해당한다. 명령문의 서술어에 대해서술어의 시제와 상, 서술어의 제약을 살펴보았다. 명령문 서술어의 시제와 상은 포괄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유사하다. 명령문은 본질이 과거 행동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미래성'을 취한다. 명령문의 서술어가 무표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과거 시제 표지나 미래 시제 표지를 나타내는 형태가 서술어와 결합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지향성을 가진 부사와 동반할 수 없고 현재나 미래 지향성을 가진 부사만 동반할 수 있다. 명령문에서 '미래성'을 갖기 때문에 '행위 지속상'만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고 있-'과 '-어 있-'의 상표지가 비-명령문이나 명령문에 다 쓰일 수 있으나, 베트남어에서는 비-명령문에서 사용되는 '진행상'의 'đang'는 명령문에 쓰일 수 없고 '행위 지속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부사 'cứ'로 바뀌어 사용한다.

명령문 서술어의 제약을 분석한 결과 양 언어의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사와 형용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지만 의미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그들의 갖는 의미에서 [+제어]의 자질을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는 명령문은 베트남어가 한국어에서보다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베트남어에서 명령문의 서술어가 무표적 특징이기 때문에 피동 형식이 명령문에 쓰일 수 없으나, 한국어에서는 피동사가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부정 명령문에 대해 한국어 명령문에서는 주로 '-지 말다'를 사용하는데, 베트남어에서는 부정 명령 부사인 'Đừng', 'chớ'를 사용한다. 또한, 베트남어에서 'Đừng', 'chớ' 외에 'không được'와 'cấm'으로도 부정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 이 둘과 이 둘과 한국어의 대응하는 '안 되다'와 '금지하다'는 부정 명령 표현으로 쓰일 수 있지만 부정 명령문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게다가 베트남어의 부정 명령 부사인 'Đừng'와 'chớ'는 단독으로 사용되어도 명령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의 명령문의 부정 표지인 '-지 말다'에 해당하는 기능이 없고 '하다'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제 3 장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연구 결과 및 고찰에 대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명령문을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에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구조적으로 두 언어 모두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을 가지고 있으며, 문맥이 명확할 경우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고, 억양이나 보조어 등을 통해 명령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는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 등과 같은 종결어미를 통해 명확한 경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베트남어는 경어 표현이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이며 상황적 맥락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한국어가 사회적 위계와 예절 표현을 문법적으로 잘 반영하는 데 반해, 베트남어는 명령, 제안, 권유 등의 표현 구분이 비교적 유연하게 나타나며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한국어 명령문의 사용에서 적절한 종결어미 선택, 정중도 표현의 오류, 직역에 따른 어색한 표현 사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는 경어법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실수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사용을 익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공통점도 많으나 차이점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오류를 자주 범하는 이유로 판단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명령문의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다린다.

<참고문헌>

- 고성환(2003), 『국어 명령문에 대한 연구』, 역락.
- 고성환(2012), 「명령문 서술어의 제약」, 『통합인문학연구』 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87-110.
- 고영근(1976),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7-53.
- 고영근·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현정(2004), 「공손법의 실현 양상」, 『담화와 인지』 11-3, 담화인지언어학회, 1-24.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건희(2010), 「명령어 어미 '-어라'의 형용사 결합에 대하여-감탄형 어미 '-어라'와의 통합적 설명을 중심으로-」,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137-161.
- 김미숙(1997), 「부정명령문 연구」, 『새국어교육』 54-1, 한국국어교육학회, 323-342.
- 김병건(2014), 「한국어 명령 수행문의 유형과 특징」, 『인문과학연구』 4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9-131.
- 김선호(1988), 「한국어의 행위요구형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자(1987), 『발화분석의 화행의미론적 연구』, 탑출판사. 남기심.
- 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또 마이 쓰영 까(2009),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구성 대조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루티투이(201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칭 대명사 대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금자(1987), 「국어의 명령표현 연구」, 『어문연구』 1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5-91.
- 박영준(1991), 「명령문의 개념과 범주」, 『어문논집』 30, 안암어문학회, 331-349.
- 박영준(1994),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 부티엔마이(202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구성법 대조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 현행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서울: 한신문화사.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신원재(1987), 「현대국어 부정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경환(2002), 「베트남어의 경어법과 문학 속성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 학회, 238-259.
- 원프영중(2004),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칭 대명사 비교 연구: 1, 2 인칭 대명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 외(2019),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유혜령(2010), 「국어의 형태·통사적 공손 표지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청람어문교육학회, 377-409.
- 응우옌티투이(2018), 「한국어 상적 표현 '-고 있다', '-어 있다'와 베트남어 대응표현 'đang' 대조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2006), 「형용사 명령문에 대한 고찰」, 『이병근 선생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 학사, 553-565.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지선(2014),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명령 화행 실현 양상 분석-명령형 어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수(2016), 「한국어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희(2004), 「국어 종결어미의 의미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숙(2020), 「한·중 형용사 명령문의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1983), 「국어의 '절대문'에 대하여」, 『진단학보』 56, 진단학회, 97-136.
- 전혜영(1995), 「한국어 공손현상과 '-겠-'의 화용론」, 『국어학』 26, 국어학회, 125-146.
- 전혜영(2004), 「한국어 공손표현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15, 한국어의미학회, 71-91.
- 정해윤(2021), 「'공손성'을 기준으로 한 2 인칭 대명사의 유형론적 분류 재고」, 『문화교 류와 다문화교육』 10-4,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369-388.
- 조준학(1980), 「화용론과 공손의 규칙」, 『어학연구』 16-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12.
- 즈영반팻(2022),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법 문장 대조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채영희(1983), 「서법으로서의 명령법」, 『문창어문논집』 20, 문창어문학회, 165-185.
- 채영희(1984), 「우리말 직접 명령법 고찰」, 『문창어문논집』 22, 문창어문학회, 377-400.
- 채영희(1993), 「시김월의 유형에 대하여」, 『우리말 연구』 3, 우리말학회, 153-188.
- 크라우머와니다(2018), 「한국어와 태국어의 명령문에 대한 대조 연구-인칭 관계와 명 령 강도의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78, 한국어학회, 111-142.
- 한송화(2003), 「가능과 문법 요소의 연결을 통한 한국어 교육-명령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9-313.

- Bùi Mạnh Hùng(2011), 「Bàn thêm về vấn đề phân loại câu theo mục đích phát ngôn(발화 목적에 따른 문장 분류 문제 논의)」, Tạp chí Ngôn ngữ số 2(언어 잡지 2).
- Bùi Thị Kim Tuyền(2005), 「Hành động cầu khiến trong Tiếng Việt (베트남어의 명령 행위)」, luận văn Thạc sĩ Ngôn ngữ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Sư phạm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Cao Xuân Hạo(1991), 『Tiếng Việt – Sơ thảo ngữ pháp chức năng(베트남어-기 능문법 초고)』,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 Chu Thị Thủy An(2002), 『Câu cầu khiến Tiếng Việt(베트남어 명령문)』, Viện Ngôn Ngữ học, Nhà xuất bản Hà Nội.
- Diệp Quang Ban (2001), 『Ngữ pháp Tiếng Việt(베트남어 문법)』,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Hà Nội.
- Diệp Quang Ban(2004), 『Ngữ Pháp Việt Nam – phần câu-(베트남어 문법-문장)』,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Sư Phạm.
- Dinh Mai Thu Thuy(2015), 「(한국어 교육을 위한) 베트남어 상(aspect) 표현 연구- 문법상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Đào Thanh Lan(2000), 「Ứng dụng quan điểm ngữ pháp chức năng hiện đại vào khảo sát lại nhóm từ Hãy, đừng, chớ(현대 문법 기능의 응용 으로 'Hãy, đừng, chớ' 검토)」, Tạp chí Khoa học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Đào Thanh Lan(2002), 「Câu cầu khiến tiếng Việt(베트남어 명령문)」, Đề tài nghiên cứu Khoa học cấp Quốc gia 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Hà Nội.
- Hoàng Phê(1977), 『Từ điển Tiếng Việt(베트남어 사전)』, Nhà xuất bản Đà Nẵng. Hoàng Trọng Phiến(1980), 『Ngữ pháp Tiếng Việt – câu(베트남어 문법-문장-)』,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và trung học chuyên nghiệp Hà Nội.
- Lê Thị Kim Đình(2006), 「Lịch sử trong hành động cầu khiến Tiếng Việt(베트남어 명령문의 공손)」, Luận văn Thạc sĩ ngôn ngữ trường Đại học Sư Phạm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Nguyễn Anh Quế(1988), 『Hư từ trong tiếng Việt hiện đại(현대 베트남어의 허사)』,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 Nguyễn Hữu Quỳnh (2001), 『Ngữ pháp Tiếng Việt(베트남어 문법)』, Nhà xuất bản Từ điển Bách Khoa Hà Nội.
- Nguyễn Kim Thán(1987), 『Động từ trong Tiếng Việt(베트남어 동사)』,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
- Nguyễn Kim Thán(1997), 『Nghiên cứu ngữ pháp Tiếng Việt(베트남어 문법 연 구)』,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Hà Nội.
- Nguyễn Tài Cẩn (1996), 『Ngữ pháp Tiếng Việt(베트남어 문법)』,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Nguyễn Thị Đức(2010), 「Chức năng cú pháp của một số vai nghĩa trong câu Tiếng Việt(베트남어 의미역의 통사적 기능)」, luận văn Thạc sĩ ngôn ngữ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Sư phạm Thành phố Hồ Chí Minh.

Nguyễn Thị Liên(2007), 「Vị từ cầu khiến trong Tiếng Việt(베트남어 명령문의 서술어)」, Luận văn Thạc sĩ ngôn ngữ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Sư Phạm Thành phố Hồ Chí Minh.

Nguyễn Thị Thanh Ngân(2013), 「Các hành động thuộc nhóm cầu khiến tiếng Việt(베트남어의 명령 화행)」, Luận văn Tiến sĩ ngôn ngữ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Hà Nội.

Nguyễn Thị Thu Hà(2016), 「Nhóm động từ chỉ hoạt động nhận thức trong tiếng Việt (liên hệ với tiếng Anh) (베트남어의 인지 동사(영어와 대 조))」, Luận văn Tiến sĩ Ngôn ngữ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Huế.

Trịnh Sâm(2001), 『Đi tìm bản sắc Tiếng Việt(베트남어 정체성)』, Nhà xuất bản Trẻ, 229-245.